

cover artist

Caitlin McGauley

케이틀린 맥걸리



뉴욕의 일러스트레이터 케이틀린 맥걸리는 반복적인 일상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본,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작가다. 그녀의 스케치북에 담기는 것은 주로 삶이 묻어 있는 거실의 풍경, 공원의 한때, 거리의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 속 장면이다. 밝은 색감과 느슨하면서도 투명한 붓질이 더해진 평범한 일상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한다.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리다 보니 느슨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죠.” 영감을 얻기 위해 산책을 즐기고, 여름 이면 발코니에 앉아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케이틀린 맥걸리. 그녀는 일상에 필요한 행복과 느긋한 여유를 따뜻한 작품으로 완성하며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보듬는 아티스트다.

AJU
아주



아주그룹
매거진『아주좋은날』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다운받아 보세요.

2017 SUMMER

AJU QUARTERLY MAGAZINE

Vol. 49



아주 좋은 날

AJU QUARTERLY MAGAZINE
2017 SUMMER • VOLUME 49





1



2



3

섬세하게 포착하는 일상의 풍경과 행복

케이틀린 맥걸리만의 리듬감이 느껴지는 봇 터치 그리고 화사한 색감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소를 선물한다. 그녀의 작품에 담긴 따뜻한 거실 풍경, 야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 활기로 가득한 거리는 사람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때 포착 가능한 섬세한 장면이다. 그래서 그녀는 화폭을 넘어 다양한 패션, 인테리어와 협업하고, 섬유나 벽지에도 자신의 작품을 담는다. 이는 어떤 공간의 일부가 되고 누군가의 일상 속 풍경이 되기를 자처하며 소소한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그녀의 조그만 움직임이다. 그 덕분에 생활 곳곳에 자주 등장하고 발견되는 그녀의 작업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아름다운 일상의 한 부분이다.

앞표지. Flora, 2013, Water color, 11x14inch

뒷표지. Artist's Still Life, 2013, Water color, 11x14inch

1. Orchid Still Life, 2013, Water color, 11x14inch

2. Furnish Room, 2013, Water color, 11x14inch

3. Yellow Room, 2013, Water color, 11x14inch

혼자 꾸던 꿈이 함께하여 현실이 된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은 한여름 밤 달빛을 닮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작품입니다. 어긋난 운명에 눈물을 흘리던 젊은 연인이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독자들은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지요.

함께한다는 것은 한여름 무더위처럼 때론 벼겁고 때론 지치지만 해내고 나면 아름답고 충만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은 혼자인 게 좋은 계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시원한 수박은 나눠 먹어야 더 맛이 좋고, 낯선 곳으로의 휴가는 동반자가 있어야 즐거우며, 기나긴 열대야도 친구와 함께라면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몽환적인 한여름 밤의 꿈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혼자 꾸던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면 저절로 용기가 샘솟습니다. ‘함께’라는 용기가 만들어 낸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좋은날」 여름호에 펼쳐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날

「아주좋은날」은 다 함께 생각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갤러리와 같은 매거진을 추구합니다. 예술과 문화, 인문학적 바탕을 통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품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Caitlin McGauley, Flora, 2013
Water Color, 11 x 14inch

Contents

Section 1.

Art + Life

- | | |
|---------------------|-------------------------------------------|
| 02 gallery | 혼자 꾸던 꿈이 함께하여 현실이 된다 |
| 08 opinion | 혼족,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이르는 길 |
| 10 insight | 영원한 뮤즈 그리고 솔메이트 |
| 14 people | 소통에 깊이를 더하는 언어의 온도 |
| 18 curator's choice | 조승연 작가
뜨거운 여름, 한강에서 놀자!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 |

Section 2.

Now + Moment

- | | |
|-------------------------|--------------------------------------------------|
| 21 culture and the city | 자연의 삶과 사람의 삶을 간직한 낭만 산골, 무주 |
| 28 motor story | 온기와 즐거움의 메신저 트럭의 무한한 변신 |
| 32 favorite things | 가장 거칠고 따뜻한 나무 그리고 아버지의 손 |
| 36 scene of object | 목소란 장인 양병용의 餘暇食美
레옹&마틸다, 사랑과 비극의 방아쇠 레이벤 선글라스 |

Section 3.

Aju + Style

- | | |
|------------------|-------------------------------------------------------|
| 39 aju spirit | 공동체의 가치를 더하는 협업의 무한한 가능성 |
| 44 aju sharing |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여행, 제17회 아주 특별한 여행 |
| 48 aju news | 레미콘 차량의 시원한 변신,
목마른 가뭄 지역 농업용수 긴급지원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
| 52 reader's view |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



02

03

Art + Life

ELBPHARMONIE

함부르크 시민들의 자부심,
엘프필하모니

2017년 1월 11일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Hafen City 지역 엘베 강변에 거대한 물결이 일었다. 콘서트 훌 엘프필하모니가 10년이라는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개관한 덕분이다. 3개의 콘서트 훌과 레스토랑을 비롯해 15층짜리 아파트까지 갖춘 엘프필하모니는 오래된 창고 건물을 개조해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이자, 함부르크 시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완성해 낸 의미 있는 공공재다.

1960년대에 지어진 거대한 벽돌 창고를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조하겠다는 취지로 엘프필하모니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된 때는 2007년. 하지만 예산의 10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면서 완공일이 미뤄졌고, 결국 공사는 10년 동안 지속되어야 했다. 그사이 시의 사정 또한 계속해서 변화했기에, 혼란은 끊임 줄 몰랐지만 시와 시민들은 혼들림 없이 엘프필하모니 건설을 지지했다. 이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낸 결과 물결 모양을 닮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 건축물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관계자의 말처럼, 많은 이의 노력에 힘입어 문을 연 엘프필하모니는 단숨에 음악의 나라 독일의 보석이자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10년간의 스토리를 품은 공간에서 울려퍼지는 최고의 연주회는 함부르크 시민들의 빛나는 자부심이 되어 감동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다.



SENMAIDA

자연과 사람의 삶이 더불어 그려낸 풍경,
마루야마 센마이다

일본 미에현의 구마노 시에 위치한 계단식 논 마루야마 센마이다
丸山千枚田의 풍경은 여름 여행의 백미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는
1,000개가 넘는 작은 논이 펼치는 황홀한 풍경 앞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 이 풍경을 지키고 가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했으므로 계
단식 논을 조성했지만 현대에 이르러 경제적 방법이 아니라는 이
유로 점차 지양해 왔다. 마루야마 센마이다 역시 약 400년 전에는
2,200개가 넘는 작은 논들로 이뤄진 일본 제일의 계단식 논이었
으나 쌀 가격 하락, 농업의 기계화, 농촌의 고령화 등 문제が 겹치
며 1992년에는 그 개수가 530개까지 감소하고 말았다. 마루야
마 지역 주민들은 “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습니
다. 멋진 경관에 담긴 전통 농경 문화를 후세에 전하는 것은 우리
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하며 힘을 모았고 1993년 지역 주민 전원
이 마루야마 센마이다 보존회를 결성했다.

이후 꾸준히 보존 활동을 펼친 결과 마루야마 센마이다는 본
모습을 되찾아 갔다. 나아가 계절마다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열며
주민들과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전통과 자연, 사람의 공
존이라는 마루야마 센마이다의 메시지는 1994년 지정된 ‘마루야
마 센마이다 조례’에 담겨 지금에 이른다. 계절마다 표정을 바꾸는
주민과 자연의 이야기가 이 여름을 한층 더 싱그럽게 만든다.



RUNPIANO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모두의 피아노,
달려라피아노**

거실에 방치해 두었던 오래된 피아노를 거리로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3년 시작된 '달려라피아노' 프로젝트는 거실이나 공공시설에 방치된 종고 피아노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 각 예술 분야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채색한 후 거리나 공원에 설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생명력을 잃었던 피아노를 누구에게나 열린 악기로, 삽막한 거리를 예술가와 시민의 공연장으로 변신시켜 온 달려라피아노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소통이 단절된 도시 곳곳에 예술과 대화의 씨앗을 심어 왔다.

달려라피아노 프로젝트는 선유도 공원, 신촌, 광화문, 서울숲 공원, 경의선 숲길 등 다채로운 공공장소에서 큰 호응을 얻어 왔다.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워크숍을 진행하는 부스나 독서 공간으로의 전환 등 문화를 주제로 한 변신이라면 마だ하지 않는다. 마치 도시의 평상처럼, 사람들은 피아노를 매개로 한곳에 머물며 새로운 관계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킨다.

달려라피아노는 이름처럼 음악과 예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연주를 펼친다. 2017년 상반기에는 기존의 방식에 기동성을 더해 천재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와 함께 대형 트레일러에 피아노를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처럼 멈출 줄 모르는 달려라피아노의 질주는 일상의 예술, 모두의 예술이라는 꿈을 향해 달음질치며 우리의 일상을 더욱 즐겁게 변화시키는 경쾌한 마라톤이다.

혼족,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이르는 길



혼밥(혼자 밥 먹기), 혼영(혼자 영화 보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과 같은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탈피해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하겠다며 자발적 고립을 택하는 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인맥,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 놓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독자성을 지키면서도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립을 넘어, 독립적 개인들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만은 않다.

글 김찬호

孤立 고립

우리는 왜 외톨이가 되어 가는가

지난해 다음소프트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내놓았다. 트위터와 블로그의 글 5만여 개에서 '인간관계'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분석해 본 것이다. 그 결과 1위는 '무섭다'였다. 그다음으로 '허전하다', '힘들다', '스트레스'와 같은 단어가 집계되었다. 우리 시대의 마음 풍경을 반영하는 자료다.

이런 상황에서 외톨이의 삶을 선택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젊은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30대가 두드러진다. 스마트폰 이용 내역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한국인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나, 널슨 코리아·KT경제경영연구소), 20대는 게임(42.8분)보다 소통(59.3분)의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런데 30대로 올라가면 정반대로 뒤집힌다(게임 61분, 소통 30.6분). 심지어 10대(게임 32.3분, 소통 42.3분)보다 30대와 40대(게임 51.9분, 소통 26.4분)의 게임 시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까지는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연애도 하며 더불어 지내다가, 30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고립된 섬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인맥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원인으로 급속한 사회 변동과 구태의연한 통념 사이의 괴리를 짚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젊은 사원들과 권위주의에 얹매여 있는 기성세대의 의식이 충돌하며 긴장을 빚는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끼리의 소통이 원활한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는 성장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고 특히 형제자매가 적어지면서 어린 시절에 필요한 관계 맺기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데다 주거 환경이 변해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 기회도 사라졌다. 그 빈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미디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 환경을 창출했다. 그러나 디지털 신호로 주고받는 대화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에 머물 때가 많다. 30대 이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그 시기부터 필요해지는 전인격적인 만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혼밥이나 혼술을 즐기는 얼로너Aloner의 증가에 시장은 발 빠르게 대응한다. 1코노미 트렌드에 발맞춰 다채로운 상품과 마케팅을 선보인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혼자서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당연한 수순처럼 인간관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외로움만 달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관계가 절실한 상황이 있다. 자신의 나약함과 결핍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상대,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안아 줄 벗 말이다.

獨立 독립

독자성을 지키며 공존하는 법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정서적인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자신의 마음이 튼튼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의 고독한 대면이 요구된다. '고독孤獨'은 상이한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다. '고'와 '독' 두 글자에 각각 '립' 자를 붙여보자. '고립孤立'과 '독립獨立'가 된다. 근대사회에 접어들어 등장한 개인은 독립을 통해 자유를 추구했고 자기만의 인생을 향유하려 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고립에 이르고 만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혼자 서 있는 고독의 시간을,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충만하게 교류하는 공유의 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 모바일 통신이 일상화된 세계에서,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휴대전화가 울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롯이 몰입하지 못한다. 또한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연인들이 카페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광경에서처럼, 정보의 반짝임을 쫓느라 곁에 있는 사람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한다.

늘 무리 지어 몰려다니는 사람은 나약해지거나 때로 난폭해진다. 반대로 자기 세계에 갇혀 외톨이로만 지내는 사람은 타자와의 접점을 갖지 못한다. 이 두 유형의 극단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의 일부다. 단절된 소통을 아쉬워하면서 타인에게 이르는 통로를 더듬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섬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섬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자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를 벗어나 중립지대에서 만날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다. 섬에 이르면 일인칭과 이인칭의 배타적인 긴장에서 풀려나 삼인칭의 시선으로 각자를 되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타자와 끊임없이 대면하고 때로 더불어 일을 도모해야 하는 세상에서, 저마다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공생할 수 있는 해답은 이 섬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것은 고립되고 단절된 세계를 잇는 가교架橋다. 서로가 상대방 또는 다른 집단과의 거리를 의식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백을 통해 공통의 의미 세계를 빚어낼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음악 연주를 듣는 청중들은 제각기 존재하다 연주가 흐르는 순간 하나가 되어 공명한다. 예술에 심취할 때 서로에게 너그러워지듯이, 가교를 건너며 마음 깊숙한 곳에 꿈틀거리는 아름다운 기운을 끌어내고 그 기운을 매개로 타인과의 소통, 공명을 도모할 때 삶은 위대한 은총으로 빛난다.

영원한 뮤즈 그리고 솔메이트

사랑을 성장시킨 지성,
김환기 & 김향안

김환기는 한국적 서정주의를 서구 모더니즘에 접목해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이룬 한국의 대표 화가다. 1913년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1930년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김환기는 김향안을 만나게 된다. 김향안의 본래 이름은 변동림으로 1938년 「매일신보」에 첫 작품을 발표한 아래 수필집 「파리」, 「우리끼리의 얘기」, 「카페와 참종이」 등을 낸 문인이었다. 두 사람이 만날 당시 김환기는 아이가 셋 있는 이혼남이었다. 이를 이유로 변씨 가문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변동림은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기로 한다. 1944년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김환기는 자신의 아호였던 향안鄉岸을 아내에게 선물한다. 이후 김환기와 김향안은 독립된 둘이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솔메이트로 서로의 예술을 성장시키며 평생을 함께한다.



평생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은 동료이자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었던 영혼의 동반자를 소개한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김환기와 문인이다 미술 평론가였던 김향안. 아내 김향안은 남편 김환기가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한 예술적 동지였다. 다음은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 로베르트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담아 곡을 쓰고, 클라라는 남편의 곡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완성했다. 혼자서 도달하기엔 힘겨운 높은 예술의 경지에 함께라는 이름으로 도달한 두 부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글 정현주 일러스트 민지홍

예술을 완성시킨 사랑,
로베르트 슈만 & 클라라 슈만



낭만파의 선구자 로베르트 슈만은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피아니스트를 꿈꾸었다. 라이프치히 최고의 피아노 교습 선생이었던 프리드리히 비크의 문하생으로 있던 무렵, 로베르트는 스승의 딸 클라라와 사랑에 빠진다. 당시 클라라는 유럽 전역에서 청송받는 피아니스트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테크닉이 뛰어나고 곡 해석 능력마저 출중했다. 피아노 연주는 물론 성악, 바이올린, 대위법을 비롯해 작곡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여 여자 베토벤이라 불릴 정도였다. 두 사람은 프리드리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40년 결혼에 성공했다. 그 해는 로베르트의 가곡 종절반 이상이 탄생해 '가곡의 해'라고 불린다. 로베르트와 클라라는 지대한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으며 음악적으로 함께 성장했고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사랑해 세계 예술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다.

| 김 향 안 믿 는 다 는 것 은 존 중 곤 지 성 이 다 . | 믿 지 않 으 면 서 로 사 랑 할 수 없 다 . | 사 랑 이 란 믿 음 이다 .



꿈을 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

해방 이후 김환기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서 교수로 재직하며 달, 산, 매화, 달항아리 등을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그림에 담아냈다. 학계에서도 미술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내면의 답답함은 떨칠 수가 없었다.

“구라파에 가고 싶어. 도대체 내 예술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가면 되지 월 그려우.”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다. 김환기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면 김향안은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바로 다음 날 프랑스어 책을 사다가 공부를 시작했고 전쟁 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파리로 먼저 날아갔고 남편의 전시회를 준비하는 한편 대학에 다니며 미술사와 미술 이론을 공부했다.

김향안은 예술가의 아내가 자신의 직업이라 생각했고 전문적으로 해내기를 원했다. 예술가 남편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본인의 예술에 몰입하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이 곧 오래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김향안은 프랑스어를 전혀 못 하는 남편을 위해 미술 이론을 번역하는 한편 스스로의 미술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본래 문인이었던 그녀는 미술 평론까지 영역을 확장했고 남편과의 교감은 깊어 갔다. 두 사람은 당시 세계 미술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3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부부의 예술 세계를 확연히 바꿔 놓았다.

영원한 협조로 세상에 알려진 예술

서울로 돌아와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학과장으로 지내던 김환기는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수상의 기쁨을 맛본 뒤 귀국하지 않았다. 바로 뉴욕으로 날아가 아틀리에를 차렸다. 파리 생활을 통해 얻은 용기 덕분이었다.

이번에는 김향안이 뒤를 따랐다. 서울에서 누리던 안정된 생활은 그 길로 끝이 났다. 적지 않은 나이에 두 사람은 난생처음 가난을 경험했지만 김환기는 육체노동도 마다하지 않으며 예술훈련을 불태웠다. 1970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로 제1회 한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환기는 자신을 더욱 몰아붙였다. 잠자는 것도 잊은 채 그림에 몰두했다. 아내가 최선을 다해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작업과 거듭되는 노동으로 김환기의 몸은 쇠약해져 갔다. 결국 그는 1974년 목디스크 수술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김향안은 늘 부부란 하나가 하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사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협조는 계속되었다. 남편의 작품을 들고 세계를 돌며 전시를 여는가 하면, 평론 활동을 통해 김환기 작품의 가치를 알렸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환기재단을 설립하고, 부암동에 ‘김환기 미술관’을 지었다. 나무 하나, 창문 유리 하나 남편의 그림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미술관은 그 자체로 김환기의 작품을 담기 위한 완벽한 집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되었다.

아내의 손끝에서 처음 연주되는 음악

프리드리히 비크에게 클라라는 딸인 동시에 수제자였다.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그는 로베르트와 클라라의 관계를 맹렬히 반대했다. 당시 피아니스트로서 로베르트에겐 미래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무리한 연습으로 손을 다친 상태였으며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을 이루었다.

클라라는 로베르트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는 뮤즈인 동시에 헌신적인 아내였다. 로베르트는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작곡을 시작하면 그 무엇도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클라라는 집안일은 물론이고 아이들 양육까지 전담했다. 7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고단한 가사 노동을 계속하면서도 클라라는 음악원에서 수업해 생계를 유지했고,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니며 자신의 예술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

로베르트는 작곡에 몰두해 독일 가곡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여럿 남겼는데, 그중에는 클라라에게 헌정하는 곡이 많았다. 로베르트가 작곡하는 모든 음악의 첫 연주는 늘 클라라가 했다. 그의 음악을 클라라 이상으로 해석해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로베르트에게 클라라는 대체 불가능한 연주자였으며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었고, 클라라에게도 남편은 그런 존재였다. 클라라 역시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은 결과 1846년 구성과 서정성이 뛰어난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했다.

아름다운 선율로 기억된 사랑

19세기 낭만주의 천재 음악가의 전형을 보여주던 로베르트 슈만은 정신병으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다. 정서가 불안하고 환청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결국 1853년 로베르트는 라인강에 투신했고, 다음 해 요양원에 들어갔다.

세상을 떠날 즈음 열에 들뜬 로베르트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진 것은 오직 하나의 음, 라(A)였다고 한다. 라는 알파벳의 첫 글자이며 화음의 기초인 동시에 독일어 표기법에서는 클라라를 나타내는 약어이기도 하다.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남편에게 아내는 인생의 전부였던 셈이다.

1856년 로베르트는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거의 모든 곡에는 클라라에 대한 사랑이 녹아 있었다. 훌륭한 클라라도 여전히 로베르트의 사랑 안에 있었다. 1896년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는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다. 남편의 음악에 대한 평론을 써서 잡지에 실었고 세계를 돌며 연주회도 열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슈만 하우스는 로베르트와 클라라가 결혼 후 4년간 살았던 곳이자, 수많은 가곡과 봄의 교향곡이 탄생한 곳이다. 후세의 사람들은 둘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그들의 결혼기념일 즈음에 슈만 페스티벌을 연다. 두 사람이 남긴 음악과 그 음악 속에 깃든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했던 풍경 속에 남아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을 것이다.

정현주 작가 감성적이고 단정한 말과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매만져 왔다. 주요 저서로 『그래도, 사랑』, 『우리들의 파리』 생각나요』가 있다.



— 사랑스러운 클라라,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대는 한마디 단순한 말 보다 더 아름다운 걸 찾을 수 없군요. — 로베르트 슈만



소통에 깊이를 더하는 언어의 온도

조승연 작가

“언어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승연은 7개 언어를 섭렵한 언어학자이자 음악과 미술, 역사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은 인문학자다. 아는 분야를 찾는 것보다 모르는 분야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박학다식함은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도 명쾌해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만큼 관계의 스펙트럼이 넓고, 소통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그를 아주호텔앤리조트 김유리나 매니저가 만났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소통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보자.

글 김희선 사진 장호 장소 협찬 어반플레이

작가님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언어 천재’, ‘외국어 공부의 달인’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죠.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라틴어를 공부한 것이 가장 큰 계기였어요.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동양인은 이공계 과목만 잘하고 인문계 과목은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수학이나 과학은 점수를 잘 받아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라틴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는 미국 학생들조차 어려워하는 언어잖아요.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싶어서 라틴어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죠.

라틴어의 어떤 매력이 언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라틴어는 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데 쓰이는 사어死語예요. 문학, 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언어보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죠.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와 같은 고대 로마 시인들의 작품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 문화 학습의 즐거움을 느꼈고, 더 많은 언어를 배워 보자는 목표가 생겨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중국어 등을 공부했지요. 요즘은 일본어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중인데 내년에는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 공부도 시작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 윤령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어를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영어 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언어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상이 시험지이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말에 제스처를 더해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콜라를 주문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Coke’ 또는 ‘That’ 하면 완벽한 영어 문장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시험지가 대상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언어 속에 숨겨진 인문학적 지식을 소개한『이야기 인문학』과 영어 학습의 근본적인 해법을 담은『플루언트』는 조승연 작가의 대표 저서다.



작가님은 소통을 하는 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 김유리나 매니저 -

‘나는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궁금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질문도 안 하게
되거든요.

- 조승연 작가 -

작가님은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다”란 말씀을 자주 하세요. 단어를 익힌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암기는 이해의 실패입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머리에 남았을 테니 군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포근하다’란 단어를 봅시다. 정확한 뜻을 말하지는 못해도 그 느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소프트 Soft’란 단어를 듣고 ‘부드럽다’는 뜻, 즉 단어가 튀어나온다면 그건 암기의 결과예요. 우리나라 언어는 자연스럽게 몸과 연결되는데 영어는 왜 몸이 아닌 한국어와 연결이 될까요? 암기를 통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확히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암기한 지식은 ‘없는’ 지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어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단어 보다는 문학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 잡지를 읽고, 힙합에 관심이 있다면 가사를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의 쓰임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인데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암기만 하면 제대로 습득이 안 됩니다. 문법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뜻이 궁금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문법은 그 다음 문제죠.

언어를 공부하려면 근본적으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죠.
어떻게 하면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문화의 독특함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이보다 강한 것이 인간의 보편성이더군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슬프면 울고, 때리면 아프고,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사귀고 싶고… 이렇듯 사람은 하드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일지도 이미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라면, 배워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문화 또는 한국 사람과 맞지 않다는 선입견만 버리면 다른 나라의 문화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언어 학습법을 잘 알고 계셔서인지,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방식이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발표나 토론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란 덕분일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가 아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받는 교육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저는 평소에도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솔루션을 찾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격양된 분위기를 불편하게 생각해서 가끔 문화 충돌을 겪기도 하죠.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아 끈질기게 물어보거나, 논쟁하며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이 재미있어 몰입할 뿐인데 감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조직 생활에서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과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이지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 또한 느껴야 해요. 그러면 논쟁이 불어도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상대가 웃사람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선생님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의 관점에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요. 후배일 경우에는 더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 역시, 업무 비판과 사람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과 의견을 철저히 분리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아주좋은날』의 2017년 여름호 테마는 ‘혼자 꾸던 꿈이 함께하여 현실이 된다’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 대화와 소통이라는 주제가 빠질 수 없지요. 작가님은 소통을 하는 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궁금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질문도 안 하게 되거든요. 서로가 잘 아는 사이여도 ‘지금’이 순간만큼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강연을 몇 개씩 마치고 온 날, 친구가 저에게 고전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하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그런 날에는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로 머리를 식히는 게 더 적절하죠. 친구는 제가 고전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안한 것이겠지만 ‘지금’ 제 상태는 매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야흐로 바캉스 시즌입니다. 바캉스를 떠나는 아주 직원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바캉스라는 단어가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바캉스에도 무언가를 채우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여름에는 비움의 시간, 진정한 바캉스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보세요. 최대한 자극이 없는 곳으로 가서 휴대전화부터 꺼 두세요. 예전에 일본 후지산에서 텐트를 치고 휴대전화를 꺼 둔 채로 온종일 산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자체로 너무나 좋더라고요. 휴대전화를 끄고 3시간 정도는 무척 답답할 텐데요, 꼭 참고 견뎌야 합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휴대전화를 2박 3일만 끄고 있어도 많은 것이 달라져요. 우리는 비움을 위해 비워야 합니다. 이번 바캉스에는 휴대전화 없는 진정한 비움의 시간을 즐겨 보세요!

뜨거운 여름,
한강에서 놀자!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

여름이 찾아오면 도시의 푸르름은 짙어지고, 한강은 피서지로
탈바꿈한다. 눈으로 보는 한강이 아닌 온몸으로 즐기는 한강을 선사할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11개의 한강시민공원에는 '시원한강', '감동한강',
'함께한강'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득 펼쳐질 예정이다.
아직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푸른 강을 품은 도시, 서울의
매력을 전하는 특별한 축제 속으로 떠날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글 이하람 일러스트 민지홍



Tip.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

일시 2017. 7. 21 ~ 8. 20

프로그램 일정 및 정보

<http://hangang.seoul.go.kr/project2017>

시원한강, 무더위를 한 방에

수상레포츠의 천국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수상 레포츠의 천국이다.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모터보트부터 비교적 친근한 오리보트와 고무보트까지, 다양한 수상 레포츠가 시민들을 반긴다. 한강을 가장 빠르게 달리는 방법은 바로 제트스키에 몸을 싣는 것. 체감속도 200km라는 아찔한 속도로 바람과 물살을 가르며 서울을 내달릴 수 있다. 시민 공원에서 바라보는 여유로운 한강도 좋지만, 수상 레포츠로 접하는 익사이팅한 한강 또한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다.

한강의 야경을 밝히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에서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기간 동안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 바로 한강 수상택시를 타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아 보는 무지개분수 물맞이 체험으로 물줄기가 반포대교의 양쪽으로 시원하게 떨어진다. 음악에 맞춰 화려하게 변신하는 무지개분수 속에서 여름날의 무더위를 말끔하게 씻어내 보자.

이 밖에도 종이 박스로 직접 배를 제작해 스피드를 겨루는 한강 종이배 경주대회, 물풍선과 물총을 활용해 치열한 물싸움을 벌이는 한강 물싸움 축제 등 간편하고 색다른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한강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부른다.



감동한강, 역사와 스토리텔링

축제와 공연의 향연

뚝섬 백사장, 마포 새우젓, 선유봉. 젊은이들 에겐 생소한 이 단어들이 한때는 한강의 이미지를 대표했다. 지금의 뚝섬 한강공원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영복 몸매를 자랑하던 한강 해수욕장이었고, 그 옛날 마포나루는 새우젓 상인들이 가득한 장터였다. 용도 폐기된 하수처리장이 선유도로 재탄생되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지만 양화나루터에 둑단배가 정박하던 시절, 선유도는 서른 가구 남짓이 옹기종기 마을을 이룬 선유봉이었다.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한강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감동한강'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며 특색 있는 문화 공연을 선보인다. 한강을 넘나들며 땅나무를 해다 팔았던 과천나무꾼들의 삶이 느껴지는 전통 공연은 물론 한강 전통연희마당까지. 과거의 신명을 누리는 동시에 한강 스토리텔링 패션쇼, 서울인기페스티벌 등 최신 트렌드까지 섭렵할 수 있다.

더불어 다채로운 거리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 행사가 줄을 잇는다. 한강과 여름밤을 낭만으로 아우르는 한강 다리 밑 영화제, 불과 총, 음악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융복합 공연 예술 콘서트 한강파이어댄싱 페스티벌, 누워서 보는 콘서트인 '눕콘' 등과 같은 행사가 열대야 조차 즐겁게 물들일 계획이다.

함께한강, 자연을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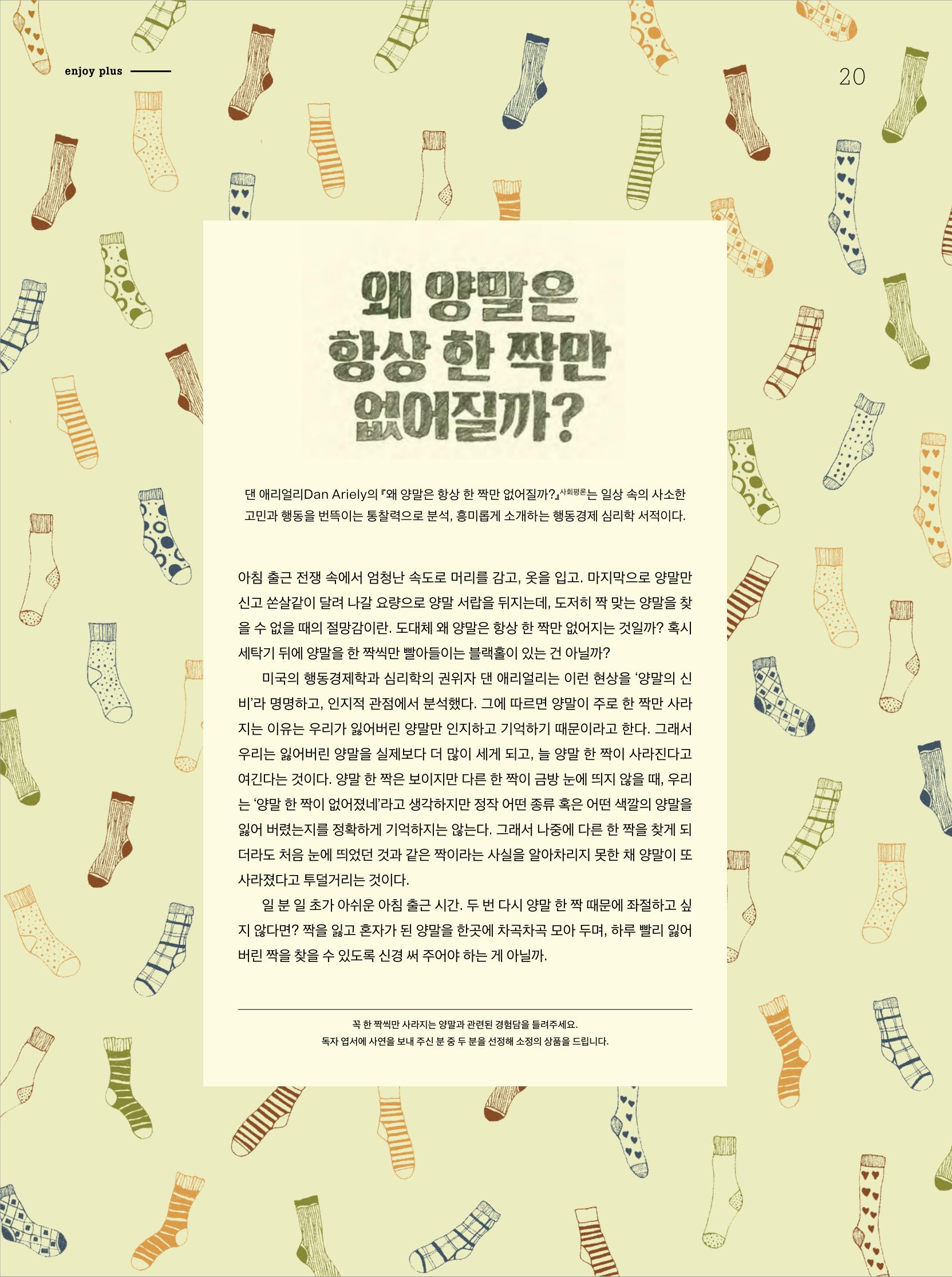
캠핑과 생태 체험

한강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즐거움은 서울에서 반드시 누려 보아야 할 식도락 체험 중 하나다.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캠핑장을 찾으면 텐트와 조리 도구 없이도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서울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꿈꿔 왔다면 반드시 방문해 보자. 마침 근처에서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축제인 글로벌푸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푸드 트럭, 밤도깨비 야시장까지 총출동해 다채로운 맛과 흥을 펼쳐 둘 계획이라고 하니 잠들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한강을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면, 한강시민공원의 한강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망원, 여의도, 반포, 잠실, 광나루를 오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꽉 채운 여행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한강이 특별한 여행지로 다가올 것이다. 어린이들은 한강의 생태를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에 참여해 새로운 관점에서 한강의 자연을 관찰하며 알차게 방학을 보낼 수도 있다.

시민의 마당, 한강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나날. 도심 속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매일매일 한강 나들이를 계획해보자.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와 함께하는 음여름은 더없이 짧고, 아쉬울 테니 말이다.





Now + Mo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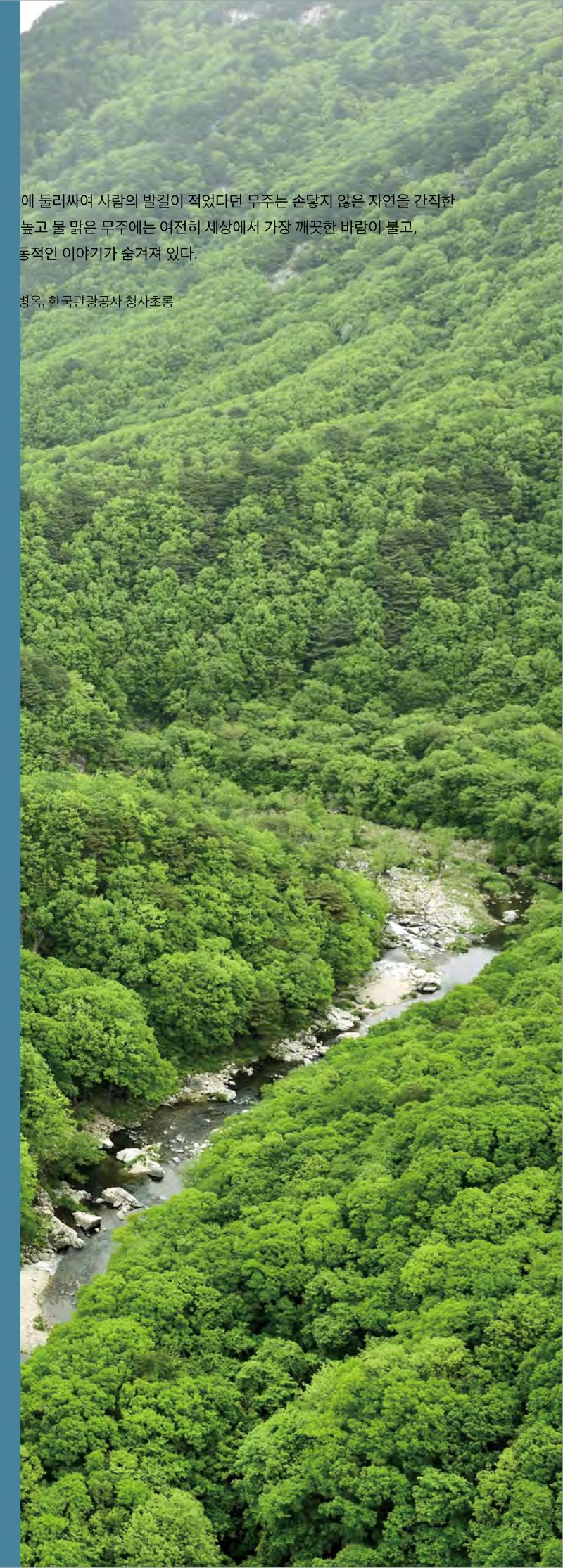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

해가 긴 여름 날에는
조금苟 대신 느긋함으로
마음을 채워 보세요

숲에 가지 않아도
깊고 푸른 산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들리고
나무 소반에 벤 나무 향이 전해져 올 거예요

바다에 가지 않아도
파도 소리가 들리고
커다란 트럭을 구경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빛나는 여름의 이야기가
따가운 햇살처럼
우리의 입가를 간지럽힐 거예요



에 둘러싸여 사람의 발길이 적었다던 무주는 손닿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높고 물 맑은 무주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바람이 불고,
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영옥, 한국관광공사 청사초롱



20

자연의 삶과 사람의 삶을 간직한

낭만 산골, 무주

왜 항상
없어?

덴 애리얼리Dan Ariely의『왜 양말은 헌
고민과 행동을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분석

아침 출근 전쟁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신고 쏜살같이 달려 나갈 요량으로 양
을 수 없을 때의 절망감이란. 도대체 왜
세탁기 뒤에 양말을 한 짹씩만 빨아들

미국의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의 전문가인 Dan Ariely는 '양말 한 짹이 없어졌네'라는 말을 통해 '양말 한 짹이 없어졌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설명한다. 우리는 얇어버린 양말을 실제보다 더 얕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양말 한 짹은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양말 한 짹이 없어졌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말 한 짹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더라도 처음 눈에 띄었던 것과 같은 짹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사라졌다고 투덜거리는 것이다.

일 분 일 초가 아쉬운 아침 출근 시간에 양말 한 짹이 없어졌다면? 짹을 잃고 혼자가 된 양말은 그저 얕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얇어버린 양말을 실제보다 더 얕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양말 한 짹은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양말 한 짹이 없어졌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말 한 짹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더라도 처음 눈에 띄었던 것과 같은 짹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사라졌다고 투덜거리는 것이다.

꼭 한 짹씩만 사라지는 양말은
독자 업서에 사연을 보내 주신 독자분

21

Now + Moment

예로부터 안개가 깊고, 첨첩 산에 둘러싸여 사람의 발길이 적었다던 무주는 손닿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경이롭고 신비한 땅이었다. 산 높고 물 맑은 무주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바람이 불고, 산골 구석구석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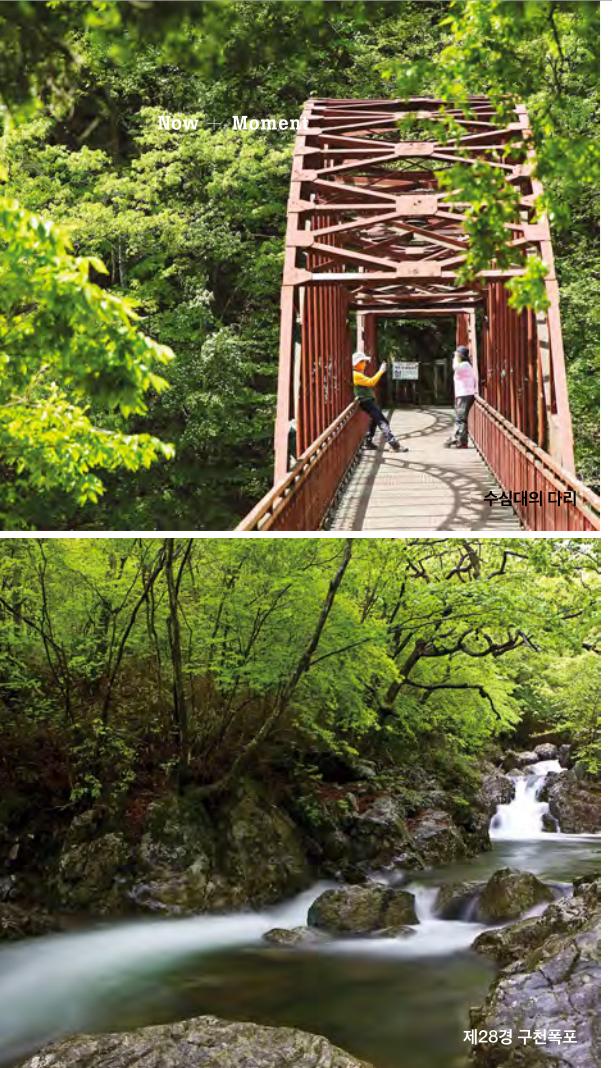
글 김선녀 기자 사진 김재경, 김병욱, 한국관광공사 청사조롱





22

23



제28경 구천폭포

Tip.1 무주가 품은 자연의 신비

1. 덕이 많고 너그러운 덕유산
해발 1,614m,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명산이다.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母山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사찰을 품고 있다.



2. 시간의 아름다움 무주삼공리반송
무주 삼공리 보안마을에 있는 반송으로 구천동의 상징이다. 천연기념물 제291호로 지정되었으며, 고한 시간을 이어 간다.



3.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칠연계곡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폭포, 소와 담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칠연폭포와 용추폭포의 시원한 물살이 감탄을 자아낸다.

숨겨진
산골의
아름다움자연이
빚어낸
무주의 이야기

궁벽진 산골의 대명사

“무주 구천동 투표함이 도착해야 선거가 끝난다”라는 말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심심찮게 쓰던 우스갯소리였다. 그런가 하면 민요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왔네 시집왔네, 무주 구천동에 시집왔네”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들판만 해도 팍팍하고, 힘겨웠을 시집살이만큼 지세 험난한 동네가 바로 이 무주였단다. 그도 그럴 것이 군 전체가 소백산맥에 속하는 무주군은 덕유산, 적상산, 민주지산, 대덕산 등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 또한 해발 400m 이상으로 온 동네가 산 중턱 어딘가인 셈이다.

그래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의 앞말을 따서 ‘무진장’으로 불리는 동북쪽의 산간 지역에는 전북의 지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장수군에서 시작된 금강은 진안군을 거쳐 무주군에만 들어서면 심하게 곡류하는데, 이는 골짜기가 좁고 깊으며, 험준한 지형이 발달하게 된 원인이다. 이 덕에 우리는 골짜기마다 고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이 빚어낸 무주의 가치

하도 첨첨이라 “사돈의 팔촌에 정승 하나 없다” 했던 무주지만 조선 시대 사람들에겐 안전한 은신처이자 숨은 이상향이었다. 덕유산은 『택리지擇里志』에서 “난리를 겪을 때 숨어들면 적군이 찾지 못해 덕德이 큰 산”이라 불리기도 했고, 세종 때의 학자 김종직은 무주 근처의 마이산을 두고 “기이한 봉우리가 하늘 밖에 서 떨어지니, 쌍으로 쭈벗한 것이 말의 귀와 같고나. 높이는 몇천 길인지 연기와 안개 속에 우뚝하도다. 우연히 임금의 행차하심을 입어 아름다운 이름이 만년에 전하네”라고 노래했다.

첨첨 산과 깊은 골짜기가 신경 써 만들어 놓은 무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발걸음을 들여놓기만 하면 그 짙은 푸르름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조선 시대 이후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정감록鄭鑑錄』에는 ‘십승지지十勝之地’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는 조선 후기 이상향에 관한 사람들의 사회적 담론이었는데, 십승지의 입지 조건은 자연환경이 좋고, 외침이나 정치적인 침해가 없으며, 자족적인 경제생활

이 충족되는 곳이었다. 그러니 그중 하나가 바로 무주 무풍茂豐이었던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사람이 드나들기 힘든 산골 무주는 그런 연유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또한 조선 말 혹시 닥칠지 모르는 난세를 피하기 위해 마련했던 명성황후의 행궁인 ‘명례궁明禮宮’ 터 역시 무주에 고요히 시간을 지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는 왕과 백성은 물론 조선의 정신과 치열한 역사의 기록을 지켜낸 천재의 요새였다. 『태조강현대왕실록』부터 『칠종실록』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왕조의 실록 28종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자료다. 조선 시대의 실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건 그 관리가 엄격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마다 편찬한 『조선왕조실록』은 4개의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했는데, 전쟁이나 화재를 피할 수 있도록 주로 깊은 산중이나 섬

지방의 수호사찰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골랐다. 무주 안성면의 적상산사고는 300여 년에 달하는 조선 역사의 한 부분을 안전하게 지켜낸 곳이다. 조선왕조는 병자호란을 겪은 뒤 무주에 왕가의 족보인 『선원록璣源錄』을 보관하게 했다. 조선 시대의 산골 마을 ‘무주현’이 ‘무주도호부’로 승격되었던 것 역시 적상산사고 덕분이었다.

무주가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을 꼽자면 덕유산 무주 구천동의 33경이다. “9,000번을 굽이쳐서 구천동이다”라는 말과 같이 구불구불한 물길이 만든 계곡을 따라서 용이 누운 듯한 와룡담臥龍潭, 학이 둉지를 틀었다던 학소대鶴巢臺, 물들이 명소인 수심대水心臺,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구천폭포九千瀑布 등 33개의 절경이 늘어서 있다. 풍경을 따라가다 지치면 사시사 철 맑고 차가운 물이 솟아나 여름에도 솜이불을 덮고 잘 정도라는 구천동의 계곡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달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첩첩산중, 내륙의 작은 도시 무주



무주는 소백산맥 서쪽, 금강 최상류에 위치해 군 전체가 산악 지대에 속한다. 산지 사이사이 계곡이 발달했고 그 주변에 고원 형태의 분지와 평야가 자리하고 있다.



여름밤,
하늘의
반딧불이

그리고
낭만의
영화 소풍

천설 속 반딧불이가 사는 곳

'형설지공蠻雪之功'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호룡불 밝힐 기름도 없을 만큼 가난했던 중국의 학자 손강과 차윤이 반딧불이를 명주 주머니에 넣고 그 빛을 비춰 공부를 했다는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다.

고대의 많은 이야기가 그렇듯 형설지공의 사연 역시 이제 그저 전설로 남았는지 모른다. 요즘 반딧불이로 책을 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반딧불이를 직접 눈으로 보는 일조차 귀한 경험이 되었다. '개똥벌레'라고도 부르는 반딧불이는 몹시 예민하고 깔끔한 곤충이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가득한 도시는 당연하고, 문명이 조금이라도 들어선 일반 시골도 반딧불이에게는 살곳이 못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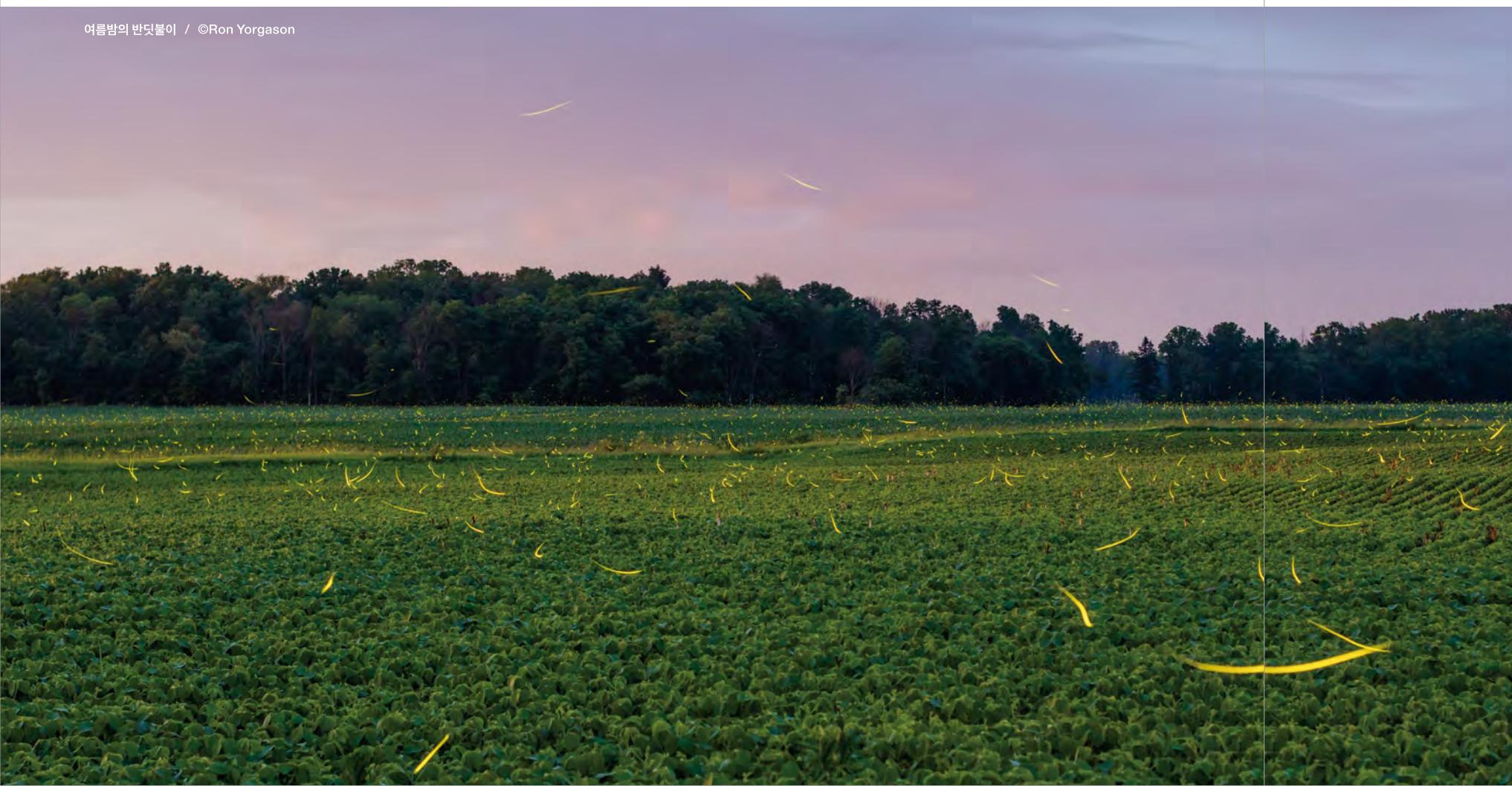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유별난 곤충 반딧불이의 서식지는 무주 설천면의 남대

천 일대다. 이곳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두 종류다. 애반딧불이는 유충 시절, 다슬기를 잡아먹으며 물속에서 살고, 늦반딧불이는 달팽이, 고동류를 먹이로 삼아 축축한 수풀 속에서 자란다. 무주의 청정한 자연을 반딧불이가 몸소 증명하는 셈이다.

애반딧불이는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늦반딧불이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서서히 떠오르며 무주의 여름을 수놓는다.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반딧불이의 서식지 무주는 이를 기념하고, 더 많은 사람과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매년 '무주반딧불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반딧불이 서식지에 직접 찾아가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탐사체험이다. 깜깜한 밤, 낮은 야산에 낸 좁다란 텁방로를 걸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도시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이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달빛에

여름밤의 반딧불이 / ©Ron Yorgason



의지해 조용히 거닐어야 하는데, 두메산골 깨끗한 자연에 꽁꽁 숨어 사는 반딧불이가 까만 숲속에 점점이 나타나며 빛을 내는 순간은 가히 감동적이다.

올해 무주반딧불축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탐사 체험 외에도 반디랜드에서 반딧불이의 일생을 관찰하거나 식물원에 들러 150여 종의 열대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천문과학관에서는 쏟아져 내릴 듯한 별을 관람할 수 있다.

낭만적인 영화 소풍

무주반딧불축제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오는 무주의 대표적인 축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별빛과 달빛, 풀벌레 소리를 벗 삼아 야외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테마의 영화제가 손님을 맞이하지만 2013년에 시작

해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한 무주산골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는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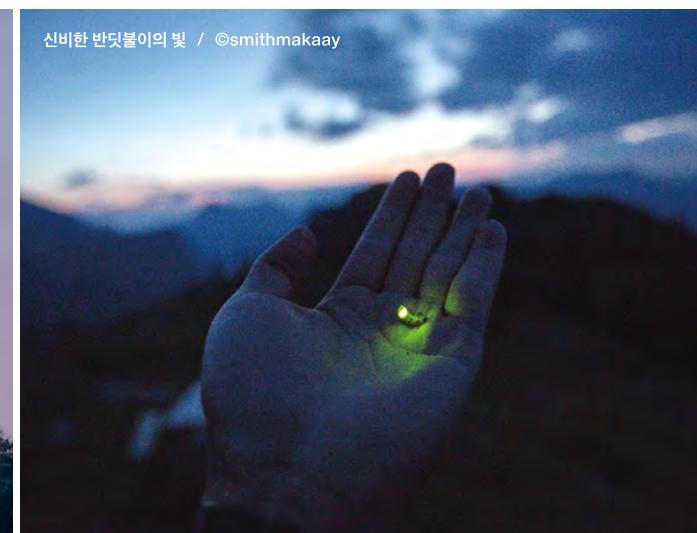
'좋은 영화 다시 보기'라는 소박한 취지의 무료 상영, 야외에서 진행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매력이지만 무엇보다 답답한 극장 대신 천장이 뻥 뚫린 무주등나무운동장이나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하늘의 별과 달을 조명 삼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티켓팅이니 인터넷 예매니 하는 삭막한 준비 과정 대신 보고 싶은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에 담요와 돛자리, 두툼한 외투를 챙겨 조금 일찍 상영장에 도착하는 부지런만 있으면 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빽빽한 현대인의 일상에 느긋한 여유를 선물한다. 탁 트인 잔디밭에 앉아 스크린 위 영화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풀벌레 소리가 귓가를 간질인다. 다른 영화제처럼 화려한 레드카펫은 없지만 싱그러운 그린카펫 위에서 엄선된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 드넓은 자연 속에서 감성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 슬며시 찾아온 무주 주민들과 섞여 한참을 앉아 있으면 몸도 마음도 무주인이 된다.

무주산골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 외에도 관련 전시,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음악 공연 등이 곳곳에서 열린다. 조용하던 산골 무주가 특별한 영화 소풍을 나온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며 특별해지는 순간이다.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산골, 무주의 영화 잔치는 매년 6월, 그것도 단 4~5일간만 진행된다. 이 짧은 기간이 아쉬워 매년 다음 해를 다시 기약하고 한다.

신비한 반딧불이의 빛 / ©smithmakaay



무주산골영화제



Tip.2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즐기기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의 여정으로 손님맞이에 나선 무주반딧불축제. 홈페이지(firefly.or.kr)에서 일정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1. 살아있는 학습장 무주반디랜드

무주 청정 환경의 상징인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학습장이다. 희귀한 곤충을 만나볼 수 있는 곤충박물관부터 야영장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무주반딧불축제 시기에 둘러보기 좋다.



2. 정겨움이 반짝이는 무주반딧불장터

1890년경 형성된 산골 전통시장으로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오일장이 여전히 매월 1일과 6일에 선다. 지역의 활기와 살아있는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시장이다.





무주의 사람 그리고 땅과의 감응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

무주의 삶을 담은 건축가

나눔의 건축으로 잘 알려진 故 정기용 건축가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무주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무주 지역의 면사무소와 납골당, 공설운동장 등 크고 작은 공공 건축물 30여 개의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 한국 건축계에서 한 명의 건축가가 하나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건축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랜 시간을 들인 건축계의 큰 사건으로 손꼽힌다.

정기용은 사람과 건축물, 땅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생각하는 건축가였다. 그는 10년간 무주 곳곳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 건축물을 지었다. 그는 건축을 통해 농촌과 도

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자 했다. 전환기를 겪고 있는 농촌 문제가 도시에 사는 모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무주에 만든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는 안성면주민자치센터다. 행정 기구로서의 면사무소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에 의한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그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으로, 답답한 주차장을 건물 뒤편으로 옮겨 입구에 서면 길게 뻗은 덕유산의 풍경이 그림처럼 넓게 펼쳐진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주민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작은 공중목욕탕이 떨려 있다. 면사무소보다 “목욕탕이나 하나 지어 달라”던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마련한 뜻깊은 공간

이다. 목욕탕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규모를 작게 짓고, 흘수 날은 남탕, 짹수 날은 여탕으로 정해 남녀가 이틀에 한 번씩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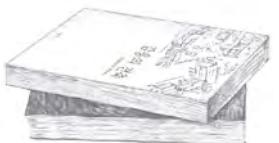
무주등나무운동장은 그의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다.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주민과 식물이 주인인 특별한 공간을 구성하는 경험이, 주민들에게는 고마운 그늘막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공설운동장으로 불렸던 과거에는 드넓은 운동장의 관중석 중 군수나 VIP가 앉는 본부석에만 햇빛을 가리는 지붕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중석 전체를 등나무가 가려주고 있다. 권위주의를 바꾸고자 했던 지역 군수의 아이디어와 건축가의 기술이 합쳐져 만든 흐뭇한 풍경이다.

그 밖에도 마을의 납골당을 비롯해 전통 재래 시장과 버스정류장 등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어 만든 공공 건축물이 무주 곳곳에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만든 건물이 지어진 지 도 10년이 넘었다. 잘 사용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에 의해 조금씩 바뀐 것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썰렁하게 빈 곳도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닌 도시와 농촌, 자연과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 담긴 진심이었다. 건축을 매개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혜를 발견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무주 주민의 삶 속에 여전히 녹아들어 있다.

Tip.3 공간의 시인 정기용 건축가

1. 경험의 기록 감동의 건축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정기용 건축가가 무주에서 펼친 공공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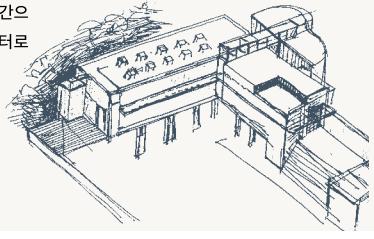
2. 삶의 메시지 말하는 건축가

-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조작하는 것이다.” 건축가 정기용의 삶과 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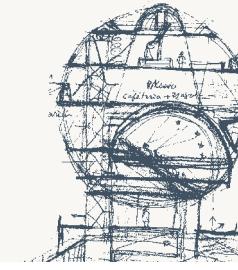


1

땅의 흐름을 품은 무주서창향토박물관
무주의 땅과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누기 위한 공간으로 구상, 설계되었다. 지금은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그 용도가 바뀌어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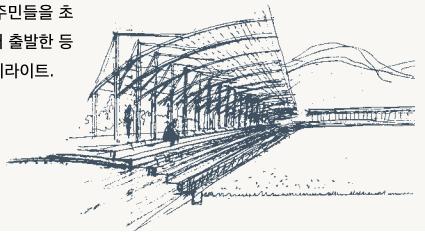
백운산 출기애 긴 반지 무주반디별천문화관
사람의 손길처럼 생긴 백운산 산등성이에 정기용 건축가가 지은 전문대. 우주를 상징하는 등근 외관의 건물에서 무주의 하늘과 우주를 만날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 안성면주민자치센터
단순 행정 기구로서의 면사무소가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재구성을 지향했다. 주민들의 한마디에 목욕탕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 큰 특징.



주민, 자연과의 감응 무주등나무운동장
관중석에 그늘이 없어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을 초대하기가 미안했던 군수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등나무 그늘 운동장은 무주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온기와 즐거움의 메신저

트럭의 무한한 변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췄을 뿐 아니라 활용 범위도 무사람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 자동차가 바로 트럭이다. 승용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는 동시에, 승용차로는 불가능한 일까지 두루 해내는 자동차. 담는대로 모습이 달라지는 트럭에 담긴 따뜻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따라 질주해 보자.

글 김한용 <모터그래프> 편집장 일러스트 민지홍

태생부터 타인을 위한 차

승용차는 개인적인 자동차지만 트럭은 결코 그 렇지 않다. 택배 배송은 물론이고 건축 자재 운반까지 해내니 어찌 보면 자신보다 남을 위한 차, 우리 생활에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라 할 만하다. 자동차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포드의 F 시리즈가 압도적인 1위, 이어 쉐보레 실버라도, 닷지 램 픽업 순으로 Big 3의 트럭이 최상위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트럭의 판매 대수 또한 언제나 상위권이다.

지금은 캠핑카, 푸드 트럭 등 무한 변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자동차의 상징이 된 트럭이지만 그 태생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동차의 성격이 강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에는 자그마한 픽업 트럭이 있다. 블루 원더Blue Wonder라는 별명이 붙은 이 차는 벤츠의 전

설적 경주차 300SL을 실어 나르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찌나 빨랐던지 경주차를 실은 상태로도 시속 170km로 달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랑프리 시리즈의 특성상 차를 빨리 옮기면 그만큼 연습할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트럭은 레이스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벤츠 레이싱 팀의 효과적인 무기이기도 했다.

가장 빠른 트럭을 만든 게 벤츠라면, 현대 인의 시각에서 '트럭'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최초의 차는 1896년 다임러의 창업자 고

틀립 다임러가 만든 트럭이다. 고틀립 다임러는 초기부터 육·해·공을 망라하는 이동 수단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만큼 많은 자동차를 두루 만들었다. 특히 다임러의 트럭은 독일의 산업화와 맞물려 원료와 대량 생산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독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온기와 가치를 전하는 트럭

이처럼 태생부터 남을 위해 봉사해 온 트럭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기지로 활약하고 있다. 나눔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동식 빨래차가 그 대표적 사례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시작된 이동식 빨래차는 노숙자의 옷가지나 이불을 2시간 만에 세탁해서 뽀송하게 말려놓는 것까지 해내 많은 이의 감탄을 끌자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가 수해 현장에서 빨래를 대신할 수 있는 이동식 빨래 차량을 공급한 바 있고, 삼성전자도 행복나눔빨래터라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식 빨래차 뜻지않게 친근한 이름이 있다. 바로 사랑의 밥차다. 단체 음식 공급의 가장 효율적인 장비인 트럭은 수많은 기업은 물론 각 지역 사회의 취지에 맞추어 다채로운 모습의 밥차로 변신하고 있다.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따뜻한 한끼 식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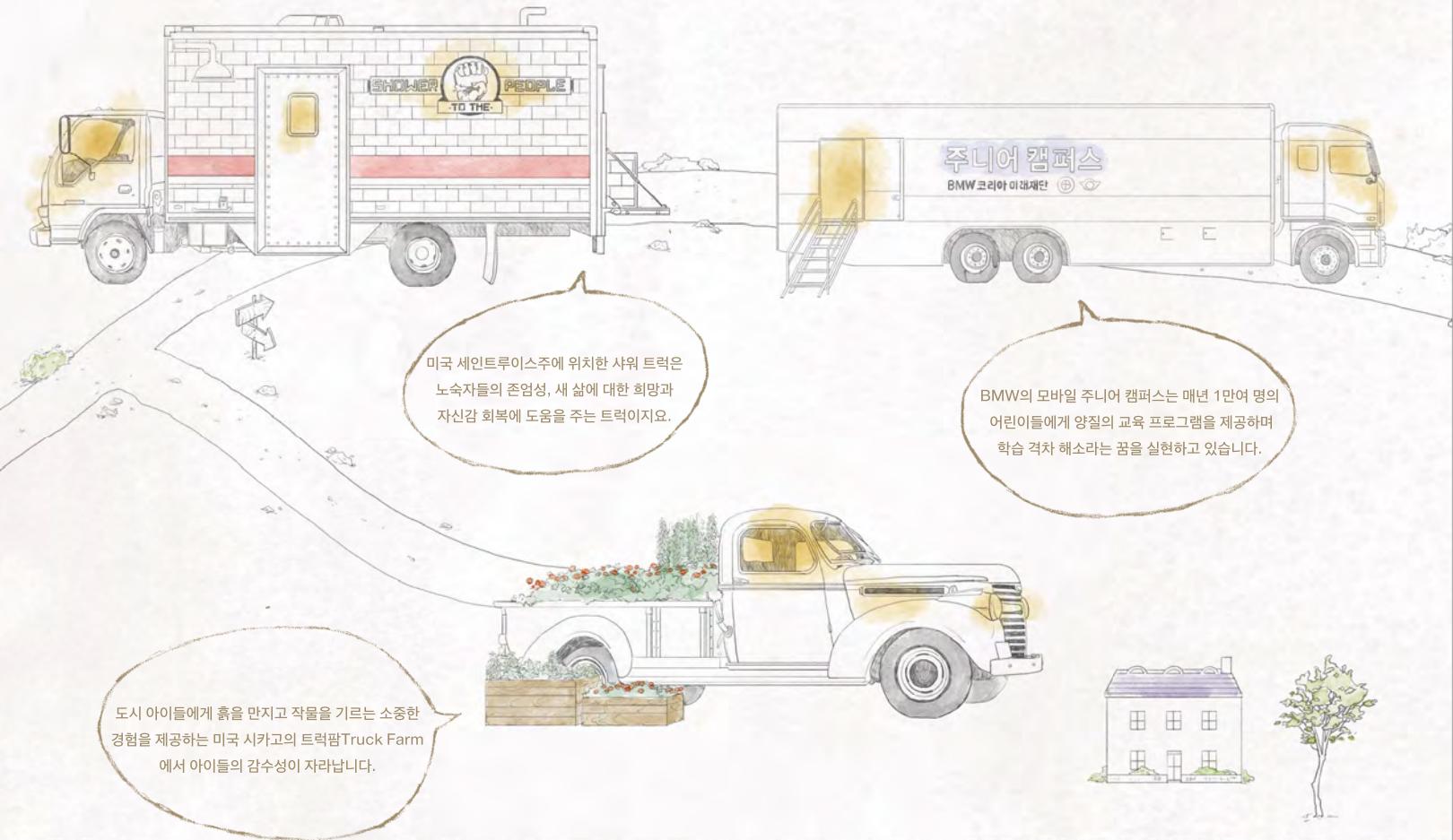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취지만큼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사회 곳곳을 든든하게 채우고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주의 샤워 트럭은 소극적인 지원을 넘어, 노숙자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운영자 제이크 오스틴은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함께 각종 목욕용품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했지만 정작 노숙자들에겐 그것을 사용할 공간이 없었다. 결국 그는 중고 트럭을 개조해 내부를 샤워 시설로 꾸민 후 노숙자들을 초대했다. 오스틴의 샤워 트럭에서 하루 평균 60여 명의 노숙자가 세면을 했고, 말끔해진 노숙자들은 인근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등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샤워 트럭은 노숙자들의 존엄성, 새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트럭을 활용해 지역사회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융합한 이론과 'STEAM' 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체험 시설물을 통해 자동차에 숨어 있는 초과학 원리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이다. 11.5t 트럭에 조성된 이 움직이는 학습장은 2012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와 어린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매년 1만 여 명의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어린이들에게 트럭은 살아 있는 학습 현장이다. 미국 시카고의 트럭팜Truck Farm은 다큐멘터리 감독 이안 체니가 시작한 프로젝트다. 트럭에 작은 밭을 싣고 학교나 지역 공원 등을 방문해 도시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경험을 제공한다. 도시의 아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열린 트럭 농장에선 날마다 아이들의 감수성이 자란다.





이야기와 즐거움을싣고 달리는 트럭

그런가 하면 우리 곁에 추억과 즐거움을 배달해 온 트럭들이 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이면 흥시, 겨울이면 굴. 제철 맞은 신선한 과일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달하며 계절을 알리는 **과일 트럭**은 정겨움의 상징이자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든든한 친구다. 구매량에 따른 가격이 정확히 매겨지는 대형 마트와 달리, 까만 비닐봉지에 한 주먹씩 더 얹어 주는 덤에 중독되면 과일 트럭 아저씨의 확성기 소리만 기다리게 된다.

정겨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뻥튀기 트럭**이다. “뻥이오!” 우렁찬 소리와 함께 퍼지는 국민 간식, 뻥튀기 튀기는 냄새는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온 동네 사람을 유혹하며 골목골목 머물다 가던 뻥튀기 트럭은 이제 골목을 벗어나 아파트 단지로 무대를 바꿨다. 그럼에도 변

치 않는 사실이 있다면 여전히 “뻥이오!” 한 마디와 고소한 냄새로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드는 인기 스타라는 점이다.

굳이 **푸드 트럭**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길거리 음식의 대부분은 트럭에서 만들어졌다. 길가의 포장마차 역시 트럭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가량의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점점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푸드 트럭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개성이 담긴 다채로운 디자인과 세계 각국의 요리가 젊은 소비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승승장구 할 전망이다.

푸드 트럭의 여세를 몰아 탄생한 **패션 트럭**도 있다. 미국이 한창 내수 경기 침체를 겪던 2010년 무렵 뉴욕에서 처음 등장한 패션 트럭은 높은 임대료를 극복하기 위해 트럭에 웃

을 싣고 거리로 나선 데서 유래되었다. 국내에서도 몇몇 패션 트럭이 홍대와 강남역 인근에서 성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비층이 점차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옮겨 가면서 사라지는 추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색다른 개성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새로운 패션 트럭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입는 것에서 벗어나 보고 즐기는 문화를 배달하는 트럭도 있다. 갤러리까지 찾아가기 힘든 이들이 의외의 장소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돋는 **갤러리 트럭**이다. 스마트폰 사진가 김민수 씨는 지난 2014년 트럭을 개조해 ‘스마트폰 사진가 김민수의 찾아가는 갤러리’를 선보였다. 그동안 찍은 사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인화해 트럭에 갤러리를 꾸리고, 도심과 시골을 누비며 이색 전시를 펼친 그의 행보는 많은 이에게 잔잔한 감동과 예술적 경험을 선사했다.



미래에도 함께할 자동차, 트럭

트럭은 이처럼 어떤 이에게는 온기를, 어떤 이에게는 추억과 즐거움을, 어떤 이에게는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변화무쌍한 자동차다. 용도와 쓰임이 다채롭고 자유로운 만큼, 자동차의 내일을 열어 가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언론에선 언제나 우버나 웨이모의 자율주행 승용차를 떠들썩하게 언급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가장 먼저 적용될 차종은 승용차가 아닌 대형 트럭일지 모른다. 물품이나 자재 운반용으로 널리 쓰이는 트럭은 장거리 운전이 많고,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 운행 영역이 제한적이고 단조롭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수행하기에 더 알맞다. 트럭의 자율주행 기능이 실현되면 트럭 운행의 위험성 또한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볼보트럭의 ‘비전2020’의 영상을 통해 볼보트럭의 미래 개발 방향도 역시 자율주행을 지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볼보트럭이 공개한 ‘비전2020’ 콘셉트 카 영상에는 자동차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대를 실현하고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볼보의 노력이 담겨 있다.

이에 더해 대다수의 트럭 브랜드는 트럭의 안전 기능을 고려해 값비싼 부품을 사용하거나 첨단 기능을 적용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자동차의 디자인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선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트럭은 주변 사람들의 생활과 잘 어울려져야 한다” 스웨덴 볼보트럭 디자인 담당자의 말이다. 힘 세고 출력이 좋아 일명 ‘괴물 트럭’이라 불리지만 도시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자인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공존과 나눔, 즐거움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트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새로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가장 거칠고
따뜻한 나무

그리고
아버지의 손

목소반 장인
양병용의

여가식미
餘暇食美

여름이면 아버지의 손을 떠올린다. 간지러운 등을 어루만져 주면 금방 시원해져서 깨끗한 잡들었던, 거칠지만 따뜻한 기억. 6월의 어느 날, 파주에서 아버지의 손을 가진 목공 장인을 만났다. 대단한 작가보다는 그저 매일 소반을 생각하고 나무를 더듬으며 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이고자 한다는 양병용 작가. 누군가가 편히 기댈 수 있는 한 그루의 좋은 나무가 되기를 꿈꾼다는 그의 이야기가 나무 향처럼 은은하게 번졌다.

글 유재원 사진 장호



“고등학교 시절 건축과 목공 실습 첫 시간이었을 거예요. 텁질을 하는 순간 목공이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천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텁질과 끌질을 반복하다 보니, 반복적인 수고와 노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참 경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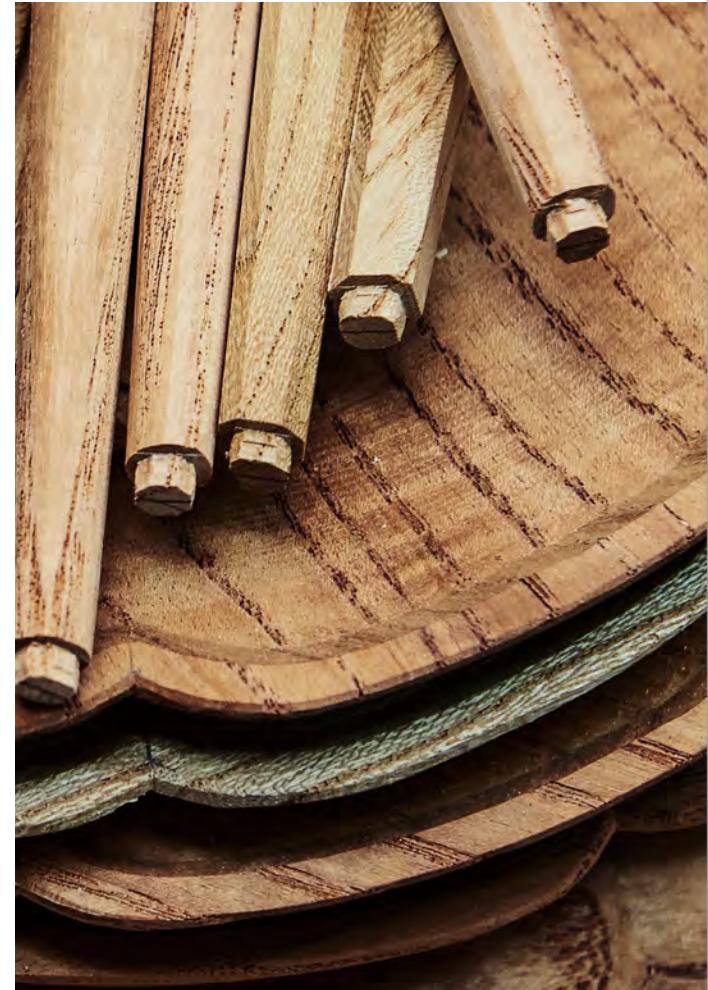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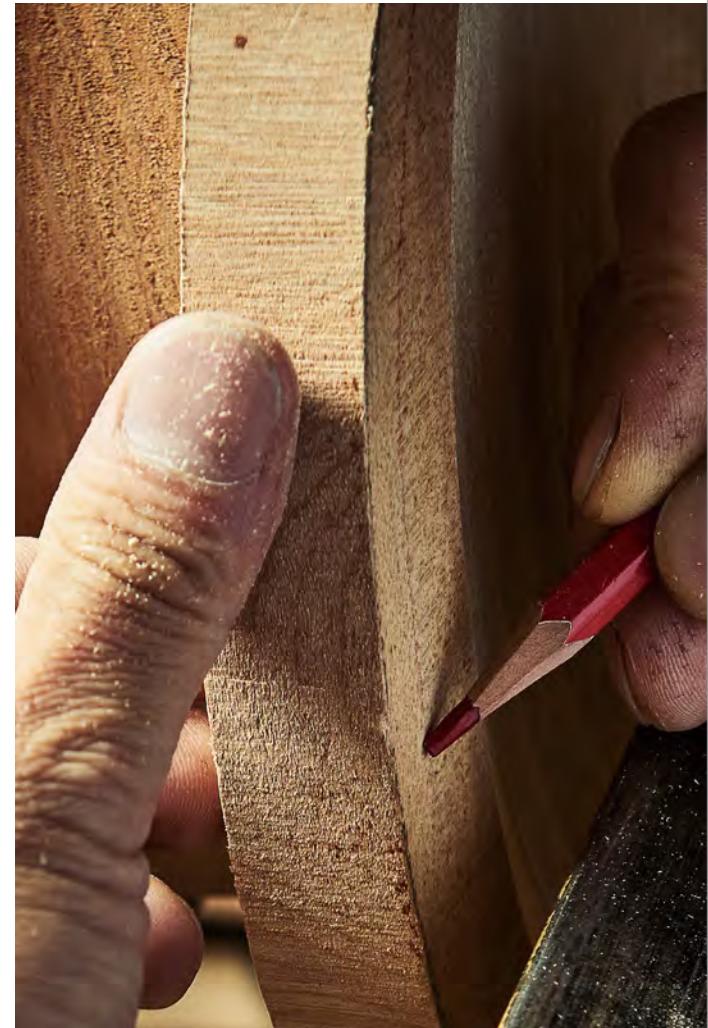
운명을 깨달은 17세 무렵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무와 동고동락해 온 양병용 작가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가구 만드는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실수한 점, 배운 점, 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을 빼곡히 기록하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더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 산업디자인 공부를 마친 2000년대 초반에는 사장되어 가던 전통 공예 기법, ‘갈이질 Woodturning’에 빠져 전국을 돌며 나무 갈이를 연마하던 열정 넘치는 목수였다. 명맥이 끊긴 전통을 더듬어 가며, 스스로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래된 공예품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갈이질을 어느 정도 알리고 난 2012년 그는 소반 작가의 길로 접어든다. 일상 속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통 기법이 살아 있으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소반을 선보이며 젊은 장인으로 불린 지 6년. 그 시간 동안 그는 전신에 옻이 오르는 고통을 감수하며 직접 옻칠을 배웠고, 더 세심한 선을 완성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개발하며 소반 작업에 전념해 왔다. 한자리에 머물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 배우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가 17세 무렵에 느꼈던 그 운명이 곧 필연이었음을 증명한다.

“끊임없이 고민하며 작업하고 있어요. 많은 작품을 접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사용했을까?’, ‘왜 이런 물건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질문을 던져요.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이 지닌 감각과 생활 속에서의 쓰임을 조화롭게 구현하려고 노력하죠. 소반에 그런 요소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탄탄하면서도 유연하다. 전통적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선에서 세련된 긴장감을 더하고, 새로운 쓰임까지 세심하게 고려한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대접의 의미를 담은 소반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좌식 생활을 하지 않는 현대인들을 위해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미니어처 선반을 만드는 등, 넓은 시야로 그려 가는 그의 행보는 ‘전통의 현대화’ 그 자체다.

눈으로는 결을 보고, 손으로는 거친 표면을 느끼며, 각 나무의 자리를 찾아 준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작업한다는 양병용 작가. 따뜻한 아버지의 손, 아름다움과 쓰임을 조화시키려는 태도, 성실한 매일의 노동으로 더없이 사랑스러운 소반을 완성해 내는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여가식미를 만나 본다.





暇

바른 정신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작업실

제가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의 정신과 마음 상태가 나무나 물건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작업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가다듬어 좋은 소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니까요. 작업실 옆에는 '반김craft'라는 갤러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와 저의 소반들이 한마음으로 여러분을 반기는 공간이지요.

餘

따뜻한 가장의 박찬 행복, 가족과의 시간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아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저고리는 딸 이음이가 태어났을 때 친하게 지내던 고객 분이 직접 만들어 선물해 준 손누비 작품이에요. 참 예쁘죠? 지금까지 제가 따뜻한 아버지의 손과 마음을 가진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딸 이음이로 인해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진짜 아빠의 손, 아빠의 마음이 되었다"고 되뇌곤하는데, 가끔씩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食

고향의 기억과 자연의 정서, 토마토

제 고향은 충북 보은입니다.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랐지요. 어렸을 때 토마토를 하나 먹으려면 먼 밭까지 나가야 했어요. 호두나무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펼쳐지던 자그마한 토마토 밭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나 따서 통째로 들고 베어 먹으면 부드럽고 상큼한 것이 참 맛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열매를 생으로, 통째로 들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와이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지만 그렇게 먹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美

전통에 대한 신뢰와 경외, 함지박

전통 공예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인사동에서 구한 갈라진 함지박이 저의 애장품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빨랫감이나 들판(새참)을 나를 때 혹은 나물을 캘 때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그릇 깎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던 당시에는 전통 기법(갈이질)으로 깎은 이 함지박에 매료되어 여러 자료를 살피고 전국 방방곡곡 답사도 많이 다니며 전통을 더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옛 어르신들의 나무를 다룬 기술과 세심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Leon 레옹 & Matilda 사랑과 비극의 방아쇠 레이밴 선글라스



허름한 코트에 화분을 든 남자와 똑단발의 소녀. 여기까지 말하고 나면 누구나 떠올리는 마지막 조각. 바로 동그란 선글라스다. 캐릭터를 완성하는 소품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게 있을까?

수많은 대중문화의 상징을 넘어 선글라스 그 자체를 대표하게 된 이름, 레이밴이다.

글 정재광



RB3447

영화 속 레옹이 착용한 RB3447 모델은 깔끔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1960년대 활동하던 전설적인 뮤지션들은 물론 오늘날 일반인들까지 사로잡았다.

사랑과 비극을 품은 선글라스

빌딩 정글을 날아오던 카메라의 시선은 점점 좁혀지다 청부살인업자인 레옹(장 르노)의 까만 선글라스에 멈춘다. 타깃을 전달받은 그는 냉철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선글라스를 벗은 레옹은 암전히 앓아 우유를 마시고 정성스레 화분을 가꾼다. 넋을 놓은 채 진 켈리의 뮤지컬을 즐기는 그는 나이 많은 소년이다. 옆집 소녀는 사는 게 지옥이다. 학교엔 안 간 지 오래고 집에서는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 유일하게 사랑하던 남동생마저 잃어버린 날, 그녀의 애타는 눈빛을 저버리지 못한 레옹은 고민 끝에 문을 열어 준다.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된 소녀. 복수를 꿈꾸는 그녀의 이름은 마틸다(내털리 포트먼)다.

청부살인업자와 소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이 야속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비극을 향해 간다. 마틸다가 레옹의 선글라스를 쓰고 스스로 복수를 하겠다며 스탠스 필드(게리 올드먼)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행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틸다가 그런 적극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들의 관계는 성사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레옹의 선글라스가 마틸다에게 이어지고 그로 인해 비극이 발생한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이었다. 레옹의 선글라스는 순수함을 가려 주던 청부살인업자의 눈이자, 레옹과 마틸다의 비극을 앞당긴 방아쇠였다. 방아쇠가 당겨지자 레옹과 마틸다의 사랑이 펼쳐졌고 그 사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와 성장이라는 선물을 남겼다.

전쟁부터 할리우드까지, 레이밴의 여정

레옹과 마틸다의 연결 고리이자 비극의 상징인 선글라스는 레이밴의 RB3447 모델이다. 레이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필요로 인해 탄생한 선글라스다. 군사 경쟁으로 전투기가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하면서, 태양 광선에 직접 노출되기 시작한 파일럿들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에 존 매크레디 중위가 바슈롬사에 조종사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을 의뢰했고, 바슈롬사는 짙은 초록색 렌즈의 보안경을 제작했다. 1937년 이를 상품화해 출시한 것이 바로 레이밴 '에이비에이터Aviator' 모델이다.

탁월한 기능성을 갖춘 전문 용품이라는 이름을 얻은 레이밴은 전후의 할리우드와 결합하며 문화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모델이 바로 레이밴 '웨이페어Wayfarer'다. 1955년 <이유 없는 반향>에서 제임스 딘이 웨이페어리를 착용하고 등장한 순간부터 이 검은 안경은 당대의 짊음과 저항의 에너지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처럼 레이밴의 선글라스는 계속해서 스타들의 신비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스타와 대중을 이어 주는 창 역할을 해냈다. 밥 딜런, 키스 리처즈, 뮤 재거 같은 록 스타부터 존 F. 케네디, 존 레논, 앤디 워홀에 이르는 유명 인사까지 레이밴과 어울린 시대의 아이콘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1999년 룩소티카 그룹에 인수된 뒤부터 오늘날까지 레이밴은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다져 왔다. 최근에는 첫 번째 모델이었던 에이비에이터를 재해석하며 고유의 가치를 이어 가는 동시에 유튜브를 이용해 짧은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발휘하고 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의 거리, 많은 사람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다. 표정을 읽을 수 없기에 우리는 자꾸만 검은 안경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공군 조종사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을 고민했던 장교의 이야기, 소녀를 사랑하게 된 나이든 소년의 이야기, 어딘가에 정착해 행복을 꿈꾸고 있을 소녀의 이야기. 그렇게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또 한 번의 여름을 보낸다. 빛나는 선글라스 레이밴과 함께.

Tip. 영화가 사랑한 레이밴

Wayfarer

<티파니에서 아침을>



화려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출리는 아침이면 커피와 빵을 들고 티파니 본점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그녀만의 의식을 치른다.

검은 지방시 드레스와 티아라, 진주 목걸이에 더해 이 장면을 완성해 주었던 것은 웨이페어리였다.

Aviator

<탑건>



레이밴과 함께한 최고의 스타는 톰 크루즈다. 비행 때를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에 착용한 그의 RB3025 에이비에이터는 세상까지도 자유로운 상공으로 만들어 주었다. 공중전보다 험난한 사랑전을 위한 그만의 훌륭한 무기, 역시 레이밴이었다.



레옹의 선글라스를 마틸다가 물려받는 순간, 이야기는 아름다운 비극을 향해 간다.



샴페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고가인 브랜드는 '돔 페리뇽'이다. 돔 페리뇽은 17세기 말,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에페르네 부근에 살던 수도승의 이름이다. 에페르네에는 '랑스'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대대로 프랑스 국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장소였다. 그래서 대관식 행사 때 쓸 와인은 에페르네의 수도승들이 직접 담갔다. 당시 수도승이었던 돔 페리뇽은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할 와인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은 와인의 달인 중 한 명이었다.

알다시피 와인은 포도즙을 발효시켜 만든다. 어느 날, 돔 페리뇽은 실수로 발효가 덜 된 포도즙을 병에 담았다. 나중에 병을 따자 거품이 올라왔는데 마셔보니 그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자기도 모르게 동료들을 향해 “여기 좀 와 봐! 나는 별을 마시고 있어!”라고 소리쳤다고 전해진다. 물론 오늘날 역사가들의 고증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한다. 샴페인이라는 술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 와인에 실수로 기포가 생기면 병이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돔 페리뇽은 평생 와인의 기포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고가 거품와인의 브랜드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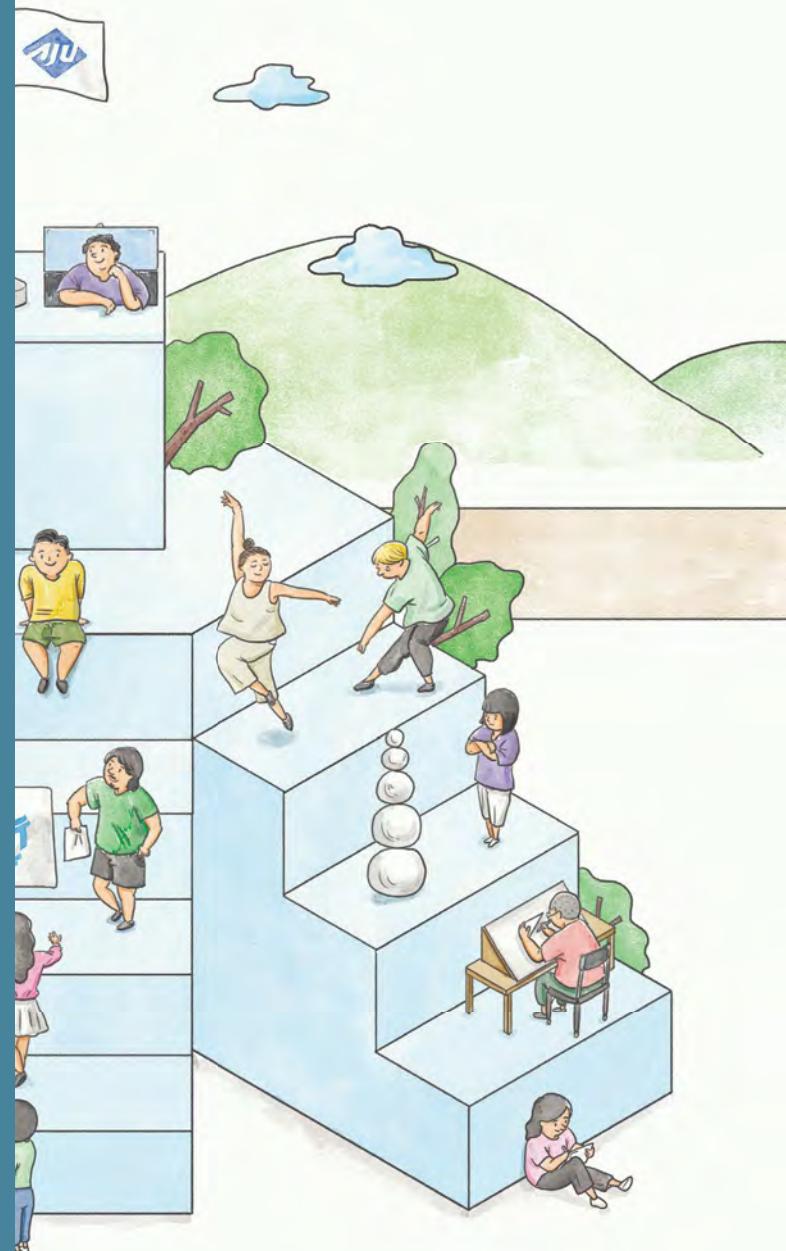
돔 페리뇽이 유명세를 얻자 유럽 곳곳에서 수많은 가짜 샴페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국제 저작권을 신청해 프랑스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스위스에도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인이 있다. 스위스에도 샹파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두 곳 외에도 유럽에는 샹파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많다. 그 이유는 샹파뉴라는 단어가 '시골' 또는 '밭'을 뜻하는 라틴어 '캄파니아'에서 왔기 때문이다. 먼 옛날 로마 사람들이 그냥 '저기 밭'이 많은 시골 동네'라고 부르던 수많은 동네들의 이름은 모조리 샹파뉴가 되었다. 샴페인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밭'이었던 셈이다.

조승연의『이야기 인문학』^{김영사}은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인문서다.
2017년 「아주 좋은 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췌해 소개한다.

Aju + Style

아주 스토리

같이하는 공동체로, 직원과 회사 그리고 국가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주의 생각에는 협업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혼자보다는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안팎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온다.



여기 두 가지 여행이 있습니다

비우는 여행 vacance

채우는 여행 travel

가장 좋은 여행은

휴식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비우고

비운 자리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우는 것이겠지요

아주가 떠나는 여행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동료와 함께하는 여행 길에서

더불어 즐기고 어울려 성장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입니다



밭이 많은 시골 동

샴페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17세기 말,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에페르랑스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그래서 대관식 행사 때 쓸 와인은 에페르랑스 페리뇽은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할 와인 만드는 알다시피 와인은 포도즙을 발효시켜 만든 도즙을 병에 담았다. 나중에 병을 따자 거둔 자기도 모르게 동료들을 향해 “여기 좀 드진다. 물론 오늘날 역사가들의 고증에 따르는 술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 문이다. 사실 둠 페리뇽은 평생 와인의 기포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고가 거품이다. 둠 페리뇽이 유명세를 얻자 유럽 곳곳이 프랑스 정부는 국제 저작권을 신청해 프랑스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와인이 있다. 스위스에도 송도 유럽에는 샹파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뜻하는 라틴어 ‘캄파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골동네’라고 부르던 수많은 동네들의 이름은 순히 ‘밭’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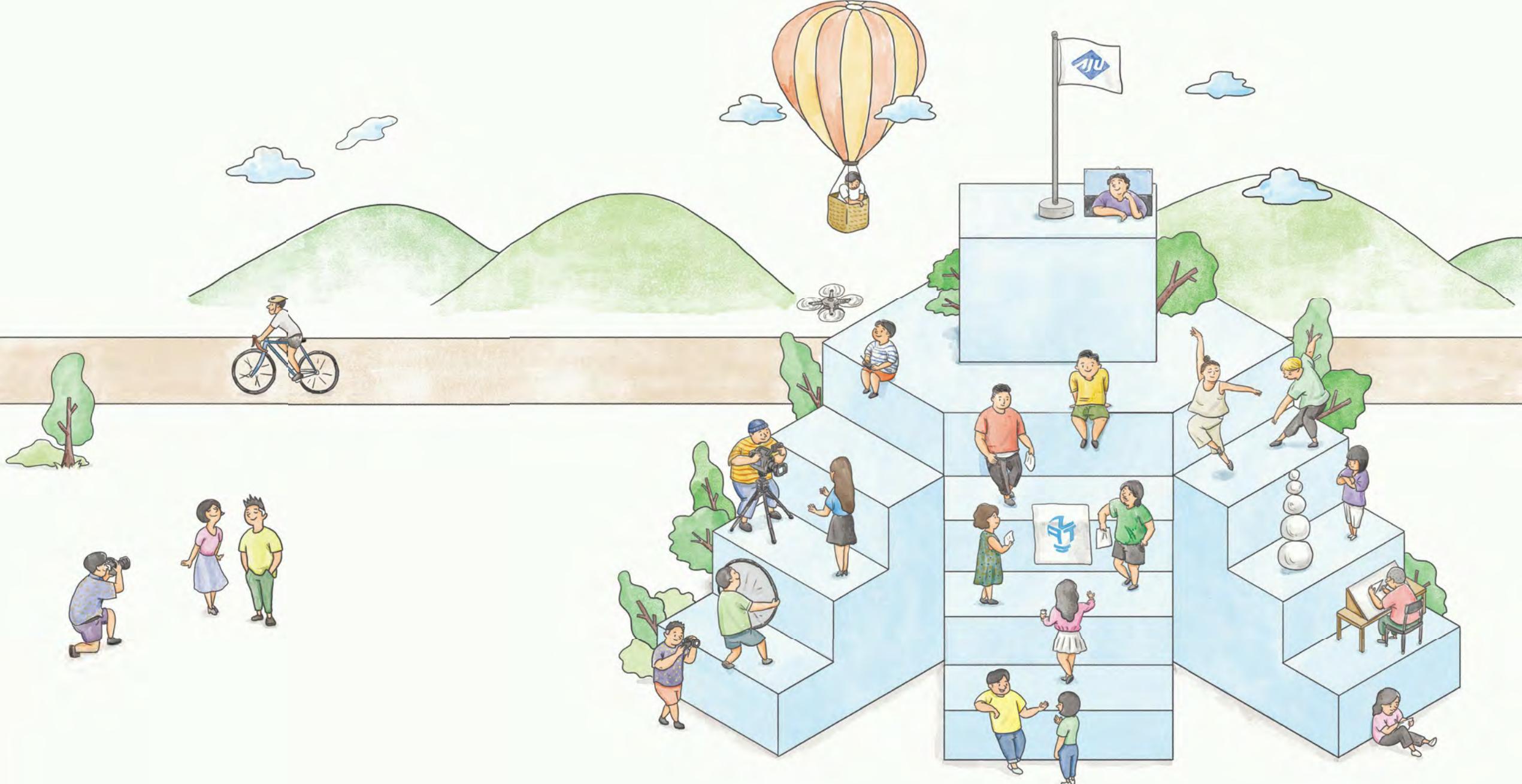
조승연의『이야기 인문학』김영사은 언어 속에
2017년 「아주좋은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

공동체의 가치를 더하는

협업의 무한한 가능성

‘기업은 사회, 구성원과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로, 직원과 회사 그리고 국가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아주 문태식 창업주의 생각에는 협업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혼자보다는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했기에 ‘같이’여서 더욱 빛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안팎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온 아주의 협업 이야기를 소개한다.

글 김수영 일러스트 민지홍





“아주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 멘토 선생님과 협업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 Creative A 참가 학생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함께 꿈꾸는 기업 문화

아주는 오랜 협업 전통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로, 직원과 회사 그리고 국가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는 문태식 창업주의 생각이 협력과 상생의 기업문화로 뿌리내려 협업의 토대가 된 덕분이다.

아주의 모태인 전자재 사업 역시 협업 전통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전자재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설사, 지역사회 구성원, 사회 전반과의 협동을 전제로 한다. 특히 아주

창업주로부터 이어져 온 협업의 전통은 오늘날 함께 꿈꾸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했고, 협업의 대상과 방법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현재 아주의 기업 안팎에서 다양한 협업 대상을 찾아 ‘함께 하는 성장, 소통과 집단지성, 협력과 화합’을 주제로 한 새롭고 창의적인 협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함께하는 성장,

대학생 협업 프로젝트 Creative A

올해 2기 멤버를 모집 중인 ‘Creative A’는 재능과 열정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아주의 기업 문화를 잘 표현하는 창작물 제작’이라는 공동의 미션에 도전하는 협업 프로젝트다. ‘경쟁’과 ‘특전’만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공모전과 달리 ‘협업’과 ‘경험’에 가치를 두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팀을 나눠 경쟁하는 대신 대학생 참가자, 아주 직원들로 구성된 서포터스, 외부 멘토가 한 팀

이 되어 공동의 목표를 이뤄 가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2016년 진행한 ‘Creative A’ 1기 때에는 협업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철학, 국문, 영상 등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를 가진 9명의 대학생을 선발했고, KBS에서 <1박 2일>을 연출했던 유호진 PD를 외부 멘토로 초청했다.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명함’을 소재로 한 홍보 영상물과 아주 계열사 전체를 표기한 명함 디자인 등 참신한 결과물이 나왔다.

협업보다 경쟁에 더 익숙한 대학생 참가자들은 작업 과정 속에서 자주 길을 잊었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데도 그 과정 자체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멘토를 만나 한 단계 성장했고, 멘토 또한 젊은 학생들의 생각과 열정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서로 다른 시선을 공유하며 함께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다시 한번 협업할 기회가 생길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얻었다. ‘Creative A’의 진짜 성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었던 셈이다.

소통과 집단지성, 무지개와 스파크플러스

아주 내부에서의 협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 중심에는 아주가 ‘100년 기업’으

로 도약하기 위해 진행 중인 ANT(AJU New Thinking)경영이 있다. 아주 구성원 모두의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뜻하는 ANT경영은 소수의 리더가 주도하고 구성원들은 따라가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유연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함께 실현 방법을 모색하며, 실패 경험과 시행착오의 교훈까지 공동의 자산으로 공유하는 집단지성 발현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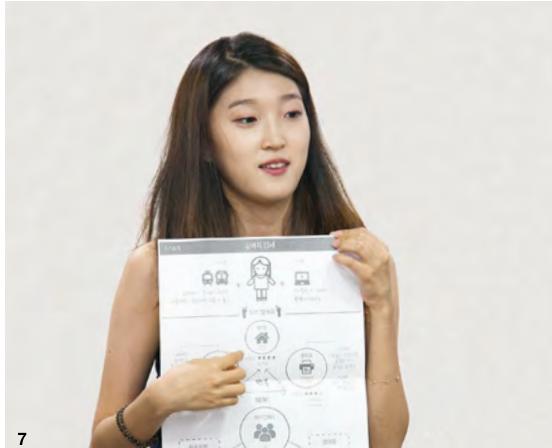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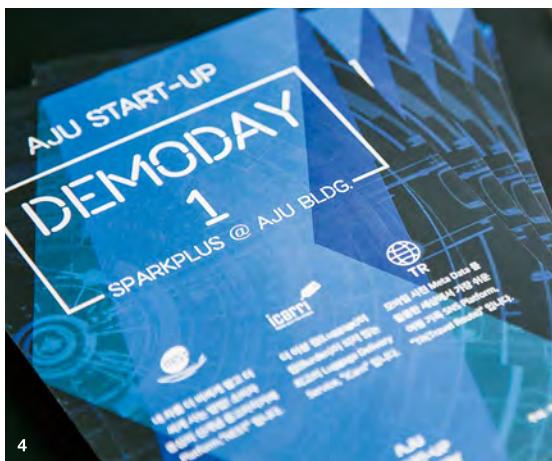
‘일상의 소소한 소통 속에도 아이디어는 분명히 있다’는 모토 아래 2016년 구축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창구 ‘무지개’는 아주의 ANT경영과 집단지성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이다. 임직원 누구라도 아이디어 제안, 목표 설정, 실행까지 쟁방향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토대로 아주인들의 자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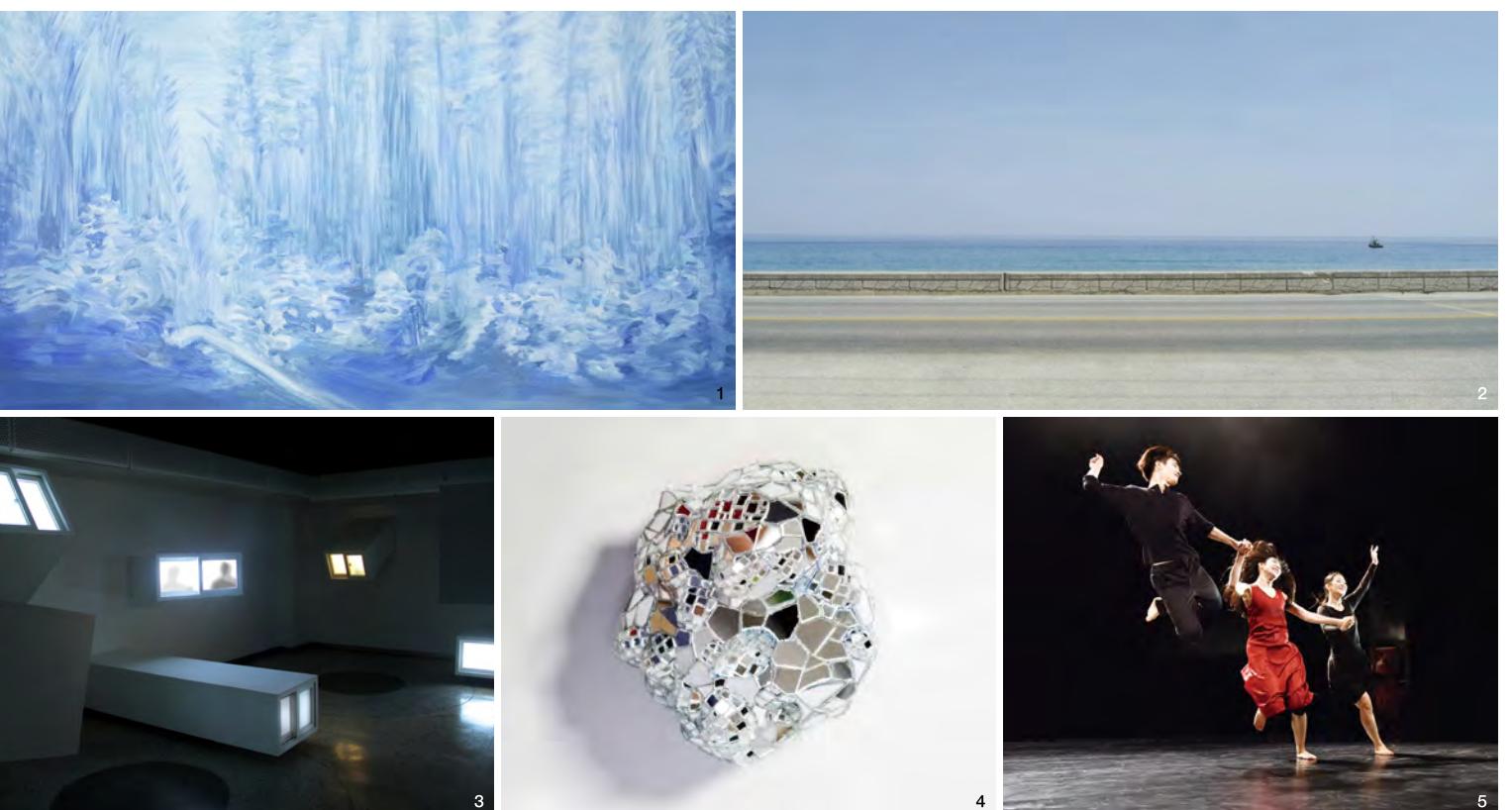
“무지개에는 아주의 일하는 방식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주인은 작은 프로젝트의 이름 하나를 정하더라도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아주 기업문화 담당 정진웅 매니저

아주에서 진행 중인 협업 활동

- 1, 2. Creative A 1기 참가자들이 협업을 통해 완성한 홍보 영상
- 3, 4. 아주빌딩 1층 스파크플러스에서 진행된 사내스타트업 ‘Demo-day’
5. Creative A 1기 결과 발표 중인 참가 학생
6. 혁신플랫폼 ‘무지개’ 모바일 버전
7. Creative A 1기 킥오프 미팅에서 발표 중인 참가 학생





“순수 예술 작가는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의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주를 만나 공장도 둘러보고 고민도 공유하며, 작업에 색다른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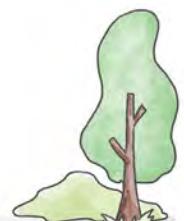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작가들의 작품

1. 퍼실리테이터 신하정, <고요한 인사>
2. 영상 함혜경, <My First Love>
3. 설치·조소 김두원, <시선들로부터 오는 불안>
4. 설치·조소 최성균, <살아난 구조 No.1>
5. 무용 선은지, <안녕하십니까> 공연

현장답사를 통해 영감을 얻는 작가들

- 6, 7. 아주산업 수원사업소를 견학 중인 참여 예술인들



협업을 통한 화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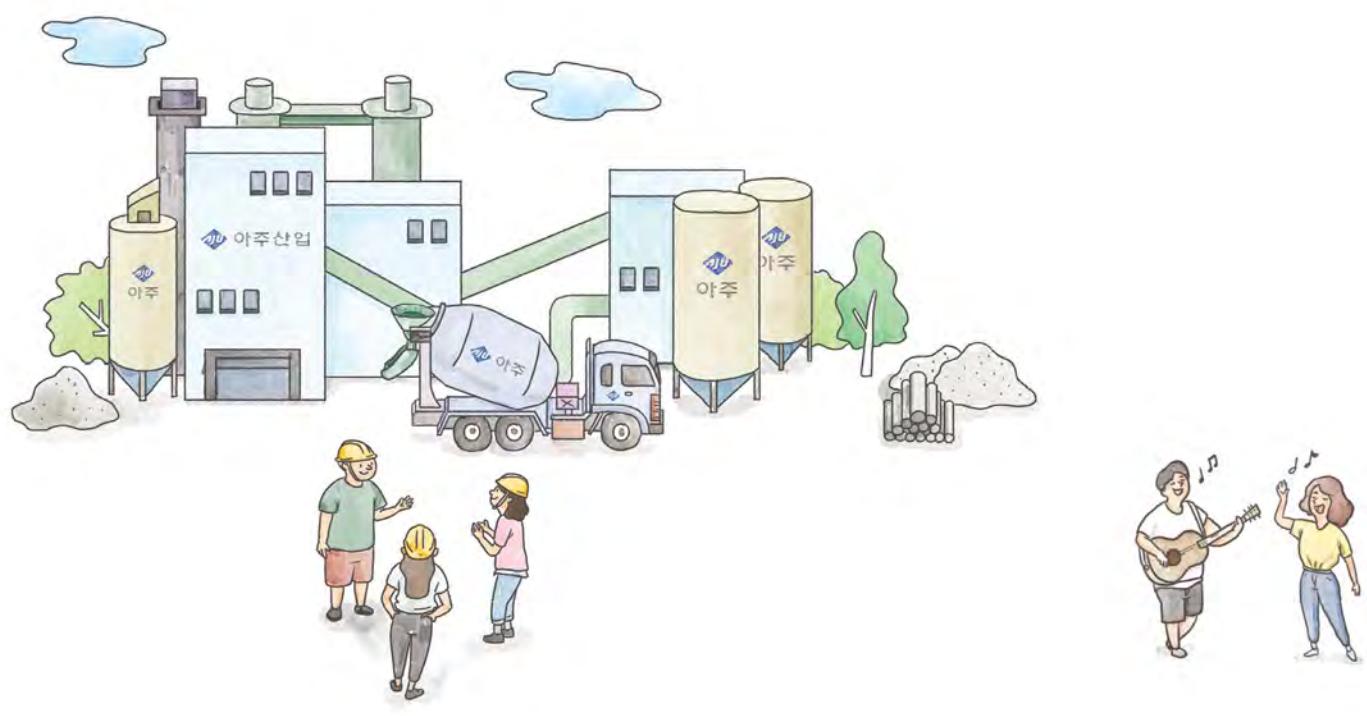
2017년 아주는 새로운 협업 활동에 도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예술을 통한 화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과 예술인 모두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예술가와의 의미 있는 협업 주제를 제안한 기업을 선정, 예술인을 파견해 기업과 예술인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주는 그룹

의 모태인 콘크리트 및 레미콘이라는 재료와 관련 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협업 주제를 제안해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때 우리 사회와 도시의 발전을 상징하던 콘크리트는 여전히 꼭 필요한 건축 재료지만,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레미콘 공장은 공해와 소음을 유발하는 혐오 시설이란 오해를 사며 지역사회와의 눈총을 받고 있다. 콘크리트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 달리 차갑고 삭막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콘크리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레미콘 공장을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시설로 바꿔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아주와 예술인들의 작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되며 의외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애초에 아주은 캐나다 밴쿠버의 레미콘 공장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공 경관에 기여하는 폐인팅 작업을 생각했다. 그런데 아주의 협업 제안에 공감해 참여를 결정한 예술인은 건축, 조형, 영상, 무용과 같은 다양



한 분야의 중견 혹은 신예 작가들이었다. 이들의 협업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기에 이번 작업을 향한 관심은 나날이 부풀고 있다. 현장 직원들 역시 현재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레미콘 공장을 견학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예술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대화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아주인들의 태도가 이번 시도에서도 빛을 발하며 협업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토대가 되는 원칙은 있다. ‘행복한 일터가 좋은 인재를 불러 모으고, 좋은 인재는 좋은 고객을 이끌며, 좋은 고객은 다시 인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최고경영자의 기업 철학이 그것이다. 선순환하는 행복의 고리는 그룹 내 기업 문화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관

계에까지 적용된다. 좋은 기업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는 좋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아주가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가치는 창의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서로의 가능성을 넓히는, 더 큰 행복의 선순환이다.

“수평적 토론과 소통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고, 회사가 성장하며,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주 문규영 회장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여행,

제17회 아주 특별한 여행

반복되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깐의 휴식이 절실할 때가 있다. 아주복지재단이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대구 지역 어머니 25분을 모시고 제17회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난 이유다. 힐링과 즐거움을 테마로 한 제주 여행은 2박 3일 일정으로 끝이 났지만, 그곳에서 생긴 어머니들의 추억과 우정은 일상으로 이어지며 앞으로의 생활을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전해진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여행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글 유재원 사진 전석병, 아주



다른 엄마들과 같이 얘기하는 자체로 위로가 되었어요.



서로 친해지니 든든하네요.

여행 후에도 계속되는 끈끈한 관계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참여한 어머니들을 맞이한 건 힐링과 즐거움을 테마로 한 최고의 여행 코스였다. 첫날은 에코랜드를 시작으로 성산 일출봉에 오르고, 사려니 숲길을 걷는 치유의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은 산악바이크, 크루즈 관광, 올레7코스 걷기 등 색다른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 밭길을 옮길 때마다 어머니들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다 함께 모여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지막 날, 어머니들은 아주복지재단이 특별히 준비한 전신 마사지로 여독을 풀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감출 길은 없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과 어울려 여행을 한 2박 3일 동안 너무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장애 아동 어머니들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늘 힘들다고 투정하고 그랬는데 좋은 기회를 만나 힐링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이와 잠시 떨어져서 다른 엄마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자체로 위로가 되었어요. 서로 친해지니 든든하기도 했고요.”

여행은 끝이 났지만, 같은 입장에서 고민과 위로를 나누며 짹튼 어머니들 사이의 우정은 자연스레 일상까지 이어졌다. 다 같이 모인 채팅방에서 여행 사진을 보며 웃고, 자녀 걱정과 일상의 수다를 나누는 나날. 생활의 피로를 이겨 낼 수 있도록 돋는 이 따뜻한 관계야말로 아주 특별한 여행이 남긴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

반드시 필요한 힐링의 시간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었거든요. 13년 만에 다시 온 건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평소에 원하긴 했지만 정작 여행은 엄두도 못냈는데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설레네요!”

2017년 6월 14일,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제주 공항에 경쾌한 대구 사투리가 울려 퍼졌다. 17번째 아주 특별한 여행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다. 올해에는 대구 지역 어머니 25분과 2박 3일간의 여정을 함께했다. ‘아주 특별한 여행’은 중증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아주복지재단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함께 2006년부터 지속해온 장수 프로그램이다.

아주복지재단은 매년 힐링과 휴식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취약계층 어머니들에게 장애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였고, 참여 대상을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정점을 찍을 시기인 학령기(8~20세) 아이들의 어머니들로 지정, 맞춤 여행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와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저는 사실 원래 올 형편이 못 되었는데,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애들 걱정 반, 설렘 반이었죠. 하지만 막상 이렇게 오니까 저절로 힐링이 되네요.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취약계층 부모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잘 충전하고 돌아가서, 또 아이랑 열심히 생활하려고요.”



1 시원한 폭포 앞에서 여고생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낸 어머니들

2 제주의 푸른 녹차밭에서 한한 표정과 마음을 담아 한 컷

레미콘 차량의 시원한 변신,

목마른 가뭄 지역 농업용수 긴급지원

6월 말, 3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전국 농가와 농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한창 농작물이 자라야 할 땅은 메말라 갈라져 있고, 그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아주산업이 나섰다. 레미콘 차량에 시멘트 대신 물을 싣고 농업용수 긴급지원에 나선 것. 한 대에 6t씩 100대, 총 600t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메마른 논과 농민의 가슴을 촉촉히 적신 레미콘 차량의 변신 이야기가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글 유재원 사진 아주



메마른 논과 농민의 눈가를 적신 레미콘 차량

2017년 6월 23일 내리쬐는 맹렬 아래 바짝 말라 갈라진 논. 레미콘 차량 10대가 줄지어 서서 그 위에 물을 쏟아 냈다. 새벽부터 나와 그 장면을 바라보던 농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자연은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모를 내야 먹고 사니까 포기를 못 하고 마음만 타들어 갔죠. 어려서부터 한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처럼 가뭄 적이 없었어요. 내 마음도 타들어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을 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농사지어 보렵니다.”

아주의 건자재 계열사인 아주산업은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레미콘사업소 인근 지역 농경지에 레미콘 차량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와중이었지만 아주산업 비봉사업소가 위치한 화성시 비봉면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인근 지역의 댐과 저수지까지 모두 메말라 물을 조달할 수 있는 취수원이 부족했기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아주산업은 비봉면사무소와 논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봉사업소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 중이던 상수도를 활용해 농업용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6월 22일부터 24일, 26일부터 27일, 총 5일간 100대의 레미콘 차량을 투입해 600t의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비봉면 쌍학리, 남전리, 양노리 등의 말라 가던 농경지 약 5만m³(1만 5,120평)에 농업용수와 함께 자그마한 희망을 전달했다.



1 농업용수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아침 일찍 사업소에 모인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님
2 레미콘 차량 농업용수 긴급지원을 통해 모내기가 가능해진 비봉면의 어느 논

내 마음도
타들어 가고
있었는데

물을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농사지어
보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행보

아주산업의 결정에 비봉사업소 레미콘 차량 운전자들 또한 힘을 보탰다.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개인 사업자이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모두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원 농민들의 새벽일에 도움을 주고자 새벽 5시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농경지에 물과 함께 자갈이나 모래가 쏟아지지 않도록 차량을 깨끗하게 세척했다. 현장에서는 삽을 들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로를 정비하기도 하며 진심을 전했다.

“아주산업과 27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듣고 당연히 돋겠다고 했어요.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시골에서 자랐기에 바라보고만 있는 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벌전해도 농사가 잘되어야 든든하잖아요. 힘들 땐 서로 도와야죠. 아직 세상엔 따뜻함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평소 도시에서 위험시설이라는 오해로 인해 눈초리를 받곤 했던 레미콘 차량의 따뜻한 변신은 많은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작은 힘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고,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벌벗고 나섰던 이번 농업용수 긴급지원을 계기로 아주는 레미콘 차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하며 달려 나갈 레미콘 차량의 따뜻한 행보에 커다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AJU NEWS

Volume 49 아주 뉴스

「아주좋은날」2017 SUMMER

www.aju.co.kr

【아주】행복한 출발, '2017 상반기 아주 신규입사자 교육'



아주는 각 계열사 35명의 신규입사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 신규 입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TS인재개발원에 모인 신규입사자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정한 아주 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첫째 날에는 비서실 커뮤니케이션 팀 탁용원 팀장의 강의가 있었다. 창업주의 창립 이념, 아주의 비전과 5대 핵심가치, 다양한 사업 영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아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은 회계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경영 회계 시뮬레이션 과정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비서실 인사팀의 PI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사 법무팀의 김영란법 교육 등 회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특별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가 지향하는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평소 직원들과의 수평적 소통을 중시하는 문규영 회장이 직접 방문해 신규입사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 문규영 회장은 "소통이 원활할 때 혁신이 이루어지고 회사가 성장하며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로 수평적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서는 아주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동시에 실질적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액스퍼트컨설팅 김인호 소장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과정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비서실 인사팀의 PI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사 법무팀의 김영란법 교육 등 회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과정이다. 이론 수업 이후에는 협업 마인드를 키워 보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자유로운 소통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어서 라이프스케어 송인혁 공동대표가 '창의적 발상을 통한 관점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아주가 강조하는 협업을 근간으로 일하는 방식과 창의성은 물론 도전 정신, 개척자 정신까지 느낄 수 있는 강의였다.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 도전정신의 발현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강의에 신규입사자들은 큰 호응을 보냈다. 이를 마지막으로 신규입사자들은 아주의 철학, 비전, 일하는 방식을 두루 학습하며 2박 3일간의 신규입사자 교육을 성공리에 마쳤다.

【아주산업】 아주산업 패밀리가 뭉쳤다! '가족과 함께하는 2017년 아주산업 체육대회'

아주산업이 '행복의 선순환, 가족과 함께하는 2017년 아주산업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전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의 가족까지 함께 화합을 도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체육대회 행사는 13년 전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렸던 체육대회 이후 처음 실시한 행사로, 4월 23일 경기도 양평군 Kobako 연수원 대운동장에서 진행했다.

450여 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는 힘찬 개회 선언을 했다. 박 대표는 아주산업의 성장에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가족 대표 어린이들의 선언문 낭독과 몸풀기 체조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하얀색(아주), 빨간색(ANT), 보라색(성장), 노란색(행복). 총 4가지 색, 4개 팀으로 구분된 아주산업 패밀리는 색깔별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임직원, 가족 구분 없는 단결력을 뽐냈다. 오전에는 간단한 레크리에



이션, 번외 프로그램 및 구기 종목 예선과 명랑운동회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점심시간 이후에 구기 종목 결승 및 두 번째 명랑운동회를 이어갔다. 총 7시간 동안 진행한 체육대회의 최종 우승은 뛰어난 협동심을 보여 준 '행복'팀에게 돌아갔다. MVP로는 계주 경기에서 훌륭한 기량을 발휘한 인천북항사업소 지원팀 이

진석 팀장의 딸 서윤 양(11)이 선정되어 아주산업 패밀리의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던 이번 체육대회는 아주산업이 자랑하는 최고의 화합을 뽐낸 감동적인 행사였다. 13년 만에 뭉친 아주산업 패밀리들의 특별한 체육대회는 기운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아주】작지만 큰 축제, '아주 특별한 연합 체육대회'

아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꿈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나눔을 실천해 왔다. 5월 31일에는 아주복지재단이 후원하는 까리따스방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 '서초특수교육교과연구회 아주 특별한 연합 체육대회(이하 아주 특별한 체육대회)' 행사에 자원봉사 단원으로 참여해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08년에 시작된 아주 특별한 체육대회는 서초지구 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8개 중학교(경원, 방배, 서일, 서초, 신반포, 언남, 영동, 원촌)에 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체육 활동의 경험을 선사해 왔다. 체육대회나 현장학습 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일반 학교 재학 장애 청소년들은 이날만큼은 다채로운 체육 활동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즐기며 흥미와 자신감을 되찾는다.



행사 당일 아주 임직원들은 체육대회 스태프로 참여하여 진행을 도왔음은 물론 아이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들은 OK 퀴즈,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장애물 이어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기며 서로를 응원

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했다.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는 목표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아주지오텍] 2년의 결실, '군포전력구 현장 하저터널 완공 기념 관통식'

미래지향적인 선진 공법과 기술로 지하 공간 개발에 필요한 시공 작업을 선도해 온 아주지오텍이 4월 13일 '군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서서울~산본) 현장(이하 군포전력구 현장)'에서 하저터널 완공을 기념하는 관통식을 가졌다.

이번 작업은 경기도 군포시 서남부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서서울 변전소와 산본 변전소를 하저터널로 연결하는 전력구를 시공하는 공사였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 대우조선해양 건설이 원청, 아주지오텍이 총 3개 구간, 5개 수직구로 구성된 하저터널 시공을 책임졌다.

2015년 5월 18일부터 진행한 작업 구간의 길이는 총 2,870m. 아주지오텍 현장 사무실이 위치한 송정 택지지구 내 방짜유기장 부근(1번 수직구)에서 군포보건소 사거리(2번 수직구)까지 2,296m. 이곳에서 다시 군포보건소(3번 수직구)까지의 구간이 약 117m이고, 도장터널 입구(4번 수직구)에서 출구(5번 수직구)까지 거리가 455m로, 3개 공사 구간



의 총 길이로 보았을 때 최대 규모의 공사에 속한다. 때문에 군포전력구 현장 공사는 마지막 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력사, 현장 직원들의 수고 덕분에 구조물 정리 작업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터널시 공본부 최재경 현장 소장은 완공의 영광을 공사 기간 내내 고생한 팀원들 앞으로 돌렸다.

"아주지오텍과 협력사 모두의 단결이 오늘의 결실을 가능케 했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24시간 주야 2교대로 고생한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주지오텍의 우수한 기술력을 증명한 이번 공사는 앞으로 아주지오텍을 대표하는 포트폴리오가 되어 긍정적 미래를 불러올 것이다.

[아주네트웍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016/17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우수 딜러 수상

아주네트웍스는 4월 2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016/17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Rtailer Of The Year, 이하 ROTY)' 우수 딜러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증명했다. 이번 ROTY 시상식에서 아주네트웍스 마케팅팀 최동호 팀장이 3년 연속 'BEST MARKETING MANAGER'상을 수상한 데 이어, 한남지점 영업2팀 신주환 팀장이 꾸준한 노력의 결실인 'TOP 10 MASTER SALES CONSULTANT'상을, 고객의 니즈 충족을 위한 고민을 이어온 성산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 전성덕 매니저가 'BEST SERVICE ADVISOR'상을 수상하며 자리를 빛낸 것.

이날 시상식은 새로운 영업 방식과 꾸준한 노력으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최동호 팀



장, 신주환 팀장, 전성덕 매니저뿐 아니라 아주

트웍스는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최고의 기량을 바탕으로 역량을 끌어올리며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주] 아주의 리더로 성장하는, '2017 AJU Performance Leadership Course'

'2017 AJU Performance Leadership Course(이하 AJU PLC)'는 신임 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주만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3개월 동안, 3단계에 걸쳐 실시되는 본 교육은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역량을 끌어내고 팀의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코칭 리더십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3월 '사전 과정'으로 시작한 AJU PLC 교육은 4월 '본 과정', 6월 '후속 과정'을 진행했다. 올해 교육에는 각 계열사 신임 팀장, 신규 입사 팀장, 건자재 사업소 팀장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AJU PLC 과정은 이론과 경험 공유가 적절히 조화된 단계별 학습 코스다. 3월 '사전 과정'에서는 리더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철학과 메시지를 공유하고, 관련 도서를 함께 접하며 리더십에 대한 통찰력을 넓혔다. 4월 '본 과정'에서는 코칭 스킬, 변화 관리, 조직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을 학습했다. 한편 신임 팀장 간 교류를 도모하는 '캔미팅' 시간을 마련,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들과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마지막 과정인 6월 '후속 과정'은 6월 8일 '성과관리 리더십 워크숍'과 6월 13일 '최고경영자 코칭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성과관리 리더십 워크숍과 최고경영자 코칭 워크숍은 '본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서 실천해 본 소감을 공유하고, 최고경영자에게 코칭을 받는 시간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선배 팀장들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의미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인 문규영 회장은 '소통'은 변화와 혁신의 기본이자 성장으로 가는 토대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좋은 리더는 답을 주는 이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토론 문화를 이끌어 다양한 소통 환경

을 조성,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당부했다.

AJU PLC 과정에 참가한 24명의 리더는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통의 중요성, 열린 문화, 리더의 역할 등을 섭렵하며 아주의 리더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아주] 친환경 그린 오피스를 위한, '화분 나눔 행사'

대기 속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요즘, 아주은 사무실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임직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공기 정화 식물 소개 및 화분 나눔 행사(이하 화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화분 나눔 행사는 아주산업 자산관리팀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제 공해 온 서비스인 'Office Green Care'의 일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신사임당에 관한 칼럼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성심껏 교육한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좋은 어머니의 룰 모델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사임당의 예술 세계를 접하며 관점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황득실 님·curator's choice



파스타를 통해 떠나는 시칠리아 여행 칼럼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사진이 크고 시원해서 그곳의 분위기가 더 잘 느껴졌습니다.
요즘 여름휴가만 기대하며 지내는데, 로마나 베네치아를 염두에
두었다가 이 칼럼을 보고 나니 시칠리아에 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햇살도 마음껏 쪄고
라구사라는 전통 파스타도 먹고.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이호진 님·culture and the city



요즘은 수입 와인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나라의 와인을 많이 접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휴일>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본
영화인데 한 번도 와인을 주목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와인에 대해 정확히 알 기회가 없었는데 꼭 찢어 설명해 주신 「아주좋은날」의 감각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용훈 님·scene of object



율로, '지금 행복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면 뭐해?'라는 생각도 종종
했고, '에이 몰라 지금을 즐길래!' 하며 현재에 충실히 삶을 살아
보기도 했지만 성인이 되어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율로의
찬스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율로의 기회를 잡으려고 그냥 견디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주좋은날」의 인터뷰를 읽으니, 저마다 율로를 위해 애쓰며 살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율로를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연희 님·aju spirit

더 나은 「아주좋은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애플트리태일즈 도서

최용훈 님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이연희 님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최예린 님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김재윤 님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임세라 님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2만 원권)

이호진 님 서울시 종로구 상봉로, 박수빈 님 경남 통영시
여황로, 나하운 님 광주시 북구 우치로, 김수연 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황득실 님 경기 의왕시 고산로

더 좋은 「아주좋은날」을 위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주좋은날」 vol.50은 2018년 1월에 발행됩니다.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새해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호 enjoy plus 사연 당첨자 공개



저희 첫째 아들이 열 살이 되었습니다. 색연필을
쥐고 노는 세 살 때부터 왼손으로 잡으려는 걸, 저는
오른손에 다시 쥐어 주며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아이를 훈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주면서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손잡이는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집 있는 저희 아들은 결국 지금도
원손잡이입니다. 편견 없이 키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부터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아이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손잡이의 특별함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영 님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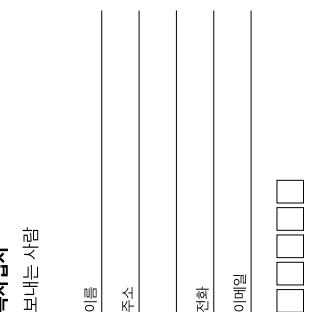
다음 호에서는 한 짹씩만 사라지는 양말의 신비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공개됩니다.



함께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조그만 움직임. 작은
일렁임이 크고 시원한
파도를 만들어 갑니다.
「아주좋은날」이 믿는
'함께'의 힘입니다.



서울시 시민기념관
제작부서: 서울시 시민기념관
제작번호: 06626
제작일자: 2016.4 ~ 2018.5.3
제작장소: 서울시 시민기념관
제작인: 수석인: 후남 님
제작인: 김기경 님



Wherever you go,
Go with all your heart.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하라

Confucius 공자



(Friendship)
일러스트레이터. 기마늘(김하늘)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신사임당에 관한 칼럼을 흥미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좋은 어머니의 롤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사임당의 예술 세계를 접하며 관점

황득실 님·curator's choice



파스타를 통해 떠나는 시칠리아 여행 칼럼이 사진이 크고 시원해서 그곳의 분위기가 더 잘 요즘 여름휴가만 기대하며 지내는데, 로마나 두었다가 이 칼럼을 보고 나니 시칠리아에 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라구사라는 전통 파스타도 먹고,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이호진



요즘은 수입 와인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나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휴일>은 셀 수 영화인데 한 번도 와인을 주목해 본 적은 없었 속 와인에 대해 정확히 알 기회가 없었는데 콕 찢어 설명해 주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용훈 님·scene of object



율로, '지금 행복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면 뭐 했고, '에이 몰라 지금을 즐길래!' 하며 현재어 보기에도 했지만 성인이 되어 책임져야 할 일이나 찬스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율로의 기회를 잡으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좋은날」의 인터뷰를 읽으니, 저마다 유효성이 느껴집니다. 율로를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인식 있는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연희 님·aju spirit

더 나은 「아주좋은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도서

최용훈 님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이연희 님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최예린 님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김재윤 님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임세라 님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2

이호진 님 서울시 종로구 여황로, 나하윤 님 광주 송파구 올림픽로, 황득실

더 좋은 「아주좋은날」을 위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주좋은날」vol.50은 2018년 1월에 발행됩니다.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아주좋은날』이라는 제작자에게는 소중한 글입니다.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좋은날』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글쓰기의 재미와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왔드니

바다와 같이 당신이 생각만 나는구려

바다와 같이 당신을 사랑하고만 싶구려

구붓하고 모래톱을 오르면

당신이 앞선 것만 같구려

당신이 뒤선 것만 같구려

그리고 지중지중 물가를 거닐면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구려

당신이 이야기를 끊는 것만 같구려

백석 作 '바다' 중에서



〈Friendship〉
일러스트레이터. 김마늘(김하늘)